

‘별’ 처럼 빛난다

2009인천세계도시엑스포의 공식 엠블럼이 발표되었습니다.

동북아 허브도시로 자리매김할 인천의 밝은 미래를 ‘별’의 형태로 형상화해
현재의 상승세(Global rising)를 상징했습니다.

우리 전통의 오방색(빨강, 초록, 노랑, 파랑, 보라)을 기본으로
활력, 생기, 희망, 도전, 조화를 표현했습니다.

인천은 2009인천세계도시엑스포를 통해 동북아 허브도시,
세계 명품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보하며 세계 도시의 큰 별이 될 것입니다.

- 기 간 : 2009년 8월14일(금) ~ 11월1일(일) 80일간
- 장 소 : 인천광역시 전역 (주전시장 : 송도국제도시 3공구 일원)
- 행사성격 : 비즈니스와 페스티벌 기능을 포괄하는 종합 엑스포



Good Morning
INCHEON

시민여러분의 사랑으로 **개통 3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소중한 시간, 천마터널이 지켜드립니다.

천 마 터 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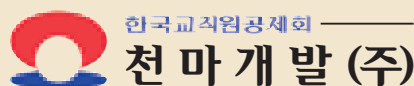
기존의 우회도로인 천마로와 당 천마터널을 통해서 백마장 사거리에서 석남1고가까지의 시간을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부천 ↔ 중동IC ↔ 삼산지구 ↔ 부평구청 ↔ 대우자동차 ↔ 백마장 ↔ **천마터널** ↔
석남동 ↔ 가정동 ↔ 서인천IC ↔ 북항 ↔ 청라도 ↔ 영종도 ↔ **인천공항**

이용도로	거 리	신호등	소요시간	유류비	통행료	계
천마터널	2.3km	2개	2분 정도	345원	800원	1,145원
천마로	4.1km	13개	12분 이상	1,475원	0	1,475원
차이	1.8km	11개	10분 이상	1,130원	800원	330원

※ (주) 본 자료는 특정일, 특정 시간대를 기준으로 실측한 자료입니다. (배기량은 2000cc 연비 10km/ℓ 휘발류 승용차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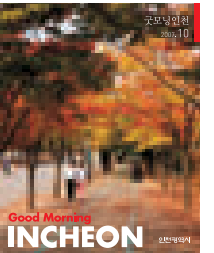


천 마 개 발 (주)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산 133-8 Tel. 032)508-6891 Fax. 032)508-6896

Good Morning INCHEON

| 세 | 계 | 일 | 류 | 명 | 품 | 도 | 시 | 인 | 천 |

COVER
추색(秋色) 물든 인천대공원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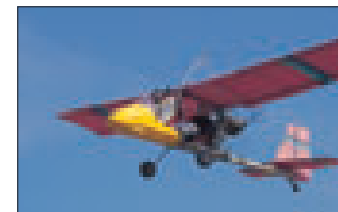
contents October 2007 통권 166호



기획특집 | 인천·중국의 날 문화축제

그 붉은 유혹

- 06 축제 프로그램 & 즐기기
- 08 차이나타운 탐방
- 12 인천화교학교 중산학교의 어제와 오늘



- 04 브리핑
 - 16 Fly Incheon
 - 20 포커스
 - 22 굿인천 굿뉴스
 - 26 시의회 소식
 - 28 문화마을 순례
 - 30 모닝커피 한 잔
 - 31 Healthy Life 건강백세
 - 32 인천이 담긴 詩 ⑩
 - 34 자매도시 우호도시 ⑦
 - 35 김치찰락
 - 36 가보니 좋았더라
 - 40 이달의 공연
 - 42 Incheon & Arts 시민문화프로그램
 - 43 시립예술단 창작뮤지컬
 - 44 꿀돌이·꿀순이와 떠나는 인천 격동한세기 ⑧
 - 46 사람 하나 만나고 싶다
 - 50 독자글 마당
 - 52 영어회화로 인천배우기
 - 53 Info Box
 - 58 신(新) 인천어부사시사
- 2009 아·태도시 정상회의 인천유치
 - 세계의 하늘 인천
 - 송도 랜드마크시티 개발
 - '중동·아프리카 8개국 대사 인천방문' 외
 - '태국 방콕시의회, 인천시의회 방문' 외
 - 글빛 한글 서학회
 - 애들아 도서관 가져!
 - 수근관 증후군
 - 이석인의 '신포동 일기'
 - 이집트의 보석, 알렉산드리아
 - '가을은 독서의 계절' 외
 - 수도권매립지 드림파크
 - '리처드 웅재오날의 겨울나그네' 외
 - '젊은베르테르의 슬픔' 외
 - '바다의 문' 외
 - 외국인 묘지와 인천
 - 필명안 씨
 - 이번달 주제 '직업'
 - 차이나타운
 - '신뢰인프라 교란사범 특별단속합니다' 외
 - 스테미너의 왕 '대하'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부됩니다. 구독문의 (032-440-2070) / 광고문의 (032-440-2071)

발행처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25(구월동 1138번지)
발행일 2007년 10월 1일
발행인 인천광역시
편집인 공보관 이일희
공보담당 사무관 조형도

편집장 유동현
취재 편집위원 정경애·편집위원 정경숙
어시스턴트 유미옥
사진 심영보·하장원(시 공보관실)
김성환(포토저널리스트)·김정식(자유사진가)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62800000-84900-42-81

편집디자인 성광디자인(주)
인쇄 (주)한성인쇄
<굿모닝인천>은 http://goodmorning.incheon.go.kr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락받은 후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브리핑 | 2009 아·태도시 정상회의 인천유치

막판 뒤집기로 유치성공

지난 9월 3일, 2007 아시아·태평양도시 정상회의(Asia Pacific Cities Summit)가 열린 호주 브리즈번시청에는 긴장감이 돌았다. 2009년에 열릴 APCS의 개최도시 결정을 앞두고 있었던 탓이다. 드디어 브리즈번시 시장이 2009년 개최도시로 인천을 호명하자 숨을 죽이고 있던 우리시 유치단은 의사에서 벌떡 일어나 환호성을 올렸다.

글·정경애 본지 편집위원 | 사진·시 국제협력관실

2009년 아·태도시 시장 인천에 모인다

APCS는 아·태지역 도시 간 공동발전을 위해 협력을 확대하고 지방정부, 전문가 및 기업인들의 아이디어·지식·경험을 나누어 지속가능한 경제개발과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기위해 1996년 호주 브리즈번시에서 창설됐다. 2년마다 열리는 APCS는 그동안 브리즈번에서 네 차례, 미국 시애틀에서 한 차례씩 열렸다. 올해는 브리즈번에 50개 도시 800여명이 모였으며, 지난 2005년에는 127개 도시 900여명이 참석해 중국 중경시에서 열렸다. 갈수록 참가도시가 늘어나는데다 비즈니스를 추가하면서 많은 기업들도 동참하고 있다.

우리시는 1년 전부터 아·태도시 정상회의에 참가하기로 결정하면서, 차기 회의 유치를 신청하고 이에 대한 가능성을 모색했다. 하지만 그동안 브리즈번시와 교류가 전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유치 과정이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우리시는 유치가 어렵다는 판단 하에 2009년 인천도시엑스포 홍보에 집중한다는 목표만을 세우고 짧은 일정으로 호주로 날아갔다.

하지만 호주에 도착한 후 상황은 달라졌다. 안상수 시장을 중심으로 한 우리시 유치단은 2009년 인천 세계도시엑스포에 많은 도시들이 참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려면 반드시 APCS를 유치해야한다는데 뜻을 모으고 긴급 전략회의를 통해 가장 유력한 인사를 만나 설득하기로 했다.

우리의 경쟁상대는 대만의 가오슝시였다. 가오슝시는 브리즈번시와 자매도시인 점을 내세워 자국 대기업의 후원을 받아 조직적으로 유치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초반부터 객관적인 우세를 나타냈다. 이에 맞서 우리시 유치단은 캠벨 뉴만(Cambell Newman)브리즈번시장과 긴급 개별 회동을 통해 엑스포기간 중 인천유치의 당위성을 적극 어필했다. 또 퀸즐랜드주정부 존 미켈(John Mickel)개발 장관과 개별 면담을 갖고 인천유치 지원을 거듭 당부하는 등 차근차근 유치의 불씨를 지폈다. 여기에 브리즈번 시의회 의원, 주 호주대한민국 대사, 주 호주아랍에미리트 명예총영사, 퀸즐랜드주정부 한국사무소 대표와 현지 기업인 등 여러 유력인사와의 물밑 접촉으로 힘을 보탰다.

도시엑스포 성공에 ‘청신호’

안시장은 세계인이 모이는 도시엑스포가 같은 시기에 인천에서 열림으로써 아·태도시 정상회의가 대외적인 인지도와 품격을 한층 높이는 등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적극 부각시켰다. 이 같은 노력으로 우리시는 경쟁도시인 대만 가오슝시를 경합 끝에 물리치고 2009 아·태도시 정상회의를 인천에 유치하게 된 것이다.

한편 같은 시기에 뉴질랜드 웰링턴시 시장, 중국 중경시 대표, 일본 고베시 부시장 등과 특별 면담을 갖고 이 도시들이 2009 인천 세계도시 엑스포에 참가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내 또다른 성과를 거뒀다. 특히 9월 1일에는 중국 최초의 경제특구 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심천시 간위핑 시장과 회동을 갖고 우호교류의향서 서명식을 갖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해 냈다.

안상수 시장은 귀국 후 가진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호주로 출발할 때만해도 인천에서 APCS를 열 수 있을 것이란 기대조차 하지 못했는데, 국제 사회에서 인천의 이름이 많이 알려지면서 의외의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천신만고 끝에 우리시가 2009 아·태도시 정상회의를 유치함으로써 ‘도시’를 주제로 하는 2009 인천 세계도시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에 청신호가 밝혀졌고, 국제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한층 부각시킬 수 있게 됐다. 🍷



- 01 2009년 인천유치 확정 후 안상수시장이 캠벨뉴만 시장과 APCS의 상징깃발을 펼쳐 보이고 있다.
- 02 중국 심천시와 우호교류의향서에 서명
- 03 아·태도시 시장회의에 참석한 각국 시장들
- 04 기업인들과의 면담



중구 북성동 일대. 중국식 전통 대문인 패루(牌樓)를 지나면 여기부터는 새로운 세상이다. 오묘하게 빛나는 홍등, 붉은 치파오를 입은 고혹적인 여인들, 춘장 냄새와 차(茶)향이 뒤섞인 독특한 향취... 붉은 유혹으로 넘실대는 이 곳은 한국 속의 작은 중국, 차이나타운이다.

글 ·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 사진 ·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니하오! 차이나 [你好: 안녕하세요]

기간 : 10월 12일(금)~14일(일)
장소 : 옛 인천 경찰청 부지 및 중부경찰서 앞 도로 일부
문의 : 시 문화예술과 ☎ 440-4022 | www.inchinaday.com

제6회 인천 · 중국의 날 문화축제

붉은 꽃처럼 화려한 정취를 자아내는 차이나타운이지만, 이곳에는 그늘진 역사가 깃들어 있다. 차이나타운은 1883년 인천항이 개항하고 1884년 청나라가 조계(租界)를 정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됐다. 대륙을 떠나 온 사람들은 중국 요리집 등으로 상권을 이뤄 한때 1만명이 모여 살 정도로 번성했다. 하지만 세상은 낯선 이방인에게 너그럽지만은 않았다. 화교들은 급변하는 정치 상황과 각종 외국인 제한정책으로 힘겹게 삶을 이어갔고 결국 하나둘 외국으로 떠나야 했다. 차이나타운이 어두운 과거를 뒤로하고 옛 영광을 되찾기 시작한 것은, 1992년 한 · 중수교가 이뤄지면서부터다. 그리고 2001년 문화관광부가 관광특구로, 지난 4월 재정경제부가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하면서 한국과 중국의 문화가 어우러진 관광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2002년에는 한 · 중수교 10주년을 기념해 인천 · 중국의 날 문화축제가 생겨나기도 했다. 축제는 한국과 중국의 문화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관광축제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올해는 한 · 중수교 15주년을 맞아 더욱 풍성하고 화려하게 펼쳐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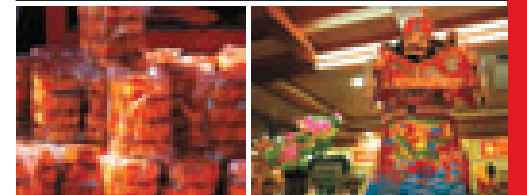
樂 풍류에 젖다

축제기간 내내 음악이 울리고 진기한 공연이 펼쳐진다. 축제가 열리기 앞서 9일에는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중국 천진시 예술단, 천진가무극원 가무단의 중국전통예술 공연인 '이채류금(異彩流金)'이 무대에 오른다. 축제기간에는 북사자춤, 용춤, 북경소림무술 등 중국의 전통예술을 공연하며 퍼레이드가 거리를 화려하게 수놓는다. 특히 14일 한 · 중 화합의 밤에는 한국과 중국의 인기 가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축제의 마지막을 장식한다.



魅 용춤 · 사자춤에 빠지다

축제기간 동안 세계적인 규모의 용춤 · 사자춤대회가 열려 흥을 돋운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용춤 · 사자춤대회에는 제2회 대회의 우승국가인 말레이시아를 비롯해 한국, 중국, 홍콩, 태국 등 9개 나라 100명이 참가한다. 또 경연대회 중간 중간에 소림무술, 가무극 등의 공연이 열려 진기한 볼거리를 선사한다.



味 풍미를 만끽하다

진한 풍미가 가득한 중국요리의 향연도 펼쳐진다. 천진시 요리사들의 정성스런 손끝에서 나온 전통 중국요리를 맛 볼 수 있으며, 중국의 전통차를 음미하고 다도(茶道)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자장면 빨리 먹기, 중국만두 많이 먹기 등의 행사는 맛에 재미까지 더했다. 이벤트는 축제기간 동안 즉석에서 참가자를 모집해 진행한다. 또 소년소녀가장과 독거노인 등 이웃과 함께 자장면을 나눠먹는 사랑나눔행사가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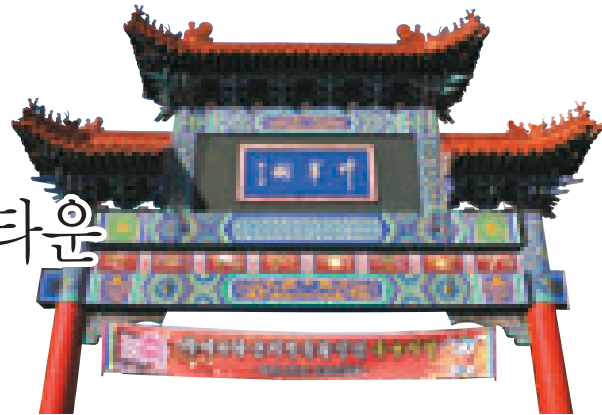
取 중국에 취하다

다채로운 중국문화 관련 행사도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천진시 공예가 60여명이 직접 중국전통공예품을 만들어 전시 · 판매하며 설탕공예, 밀가루공예, 풀공예 등 흔치 않은 볼거리가 시선을 끈다. 또 중국 황제와 황후를 비롯해 소수민족이 입던 의상이 전시되며 이를 직접 입어볼 수도 있다. 여기에 천진시의 문화와 자연, 사람들의 생활상이 담긴 사진과 월병, 전통차, 도자기 등 중국 전통특산물 관련 전시회가 열려 중국을 한껏 품을 수 있다.

※ 축제의 자세한 일정은 본지 57쪽을 참고하세요

환영광린~ 차이나타운

[欢迎光临 : 어서 오세요]



역사 · 문화 탐방

바다를 건너지 않아도 중국을 품에 안을 수 있다. 지하철 1호선을 타고 인천역에서 내려 중국식 전통 대문 패루(牌樓)에 들어서면 차이나타운이다. 이 곳에는 120여년 전 고향을 떠나 먼 이국땅에서 삶을 이어 온 화교들의 애환이 고스란히 스며있다. 기나긴 세월이 자욱이 쌓인 건물, 좁다란 길과 계단 그리고 그 사이 빛나는 홍등, 하늘로 오르는 황금빛 용이 새겨진 붉은 기둥... 화려하지만 애잔하고, 이국적이지만 낯설지 않고, 멈추어진 시간 속에 변화의 움직임이 느껴지는 이색 공간. 차이나타운으로 향한다.

2시간이면 중국이 품 안에

차이나타운에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패루다. 패루에 새겨진 화려한 문양이 파란 가을 하늘과 대비되어 가슴속에 선명하게 박힌다. 인천역 앞에 있는 제1패루는 2000년 중국 웨이하이(威海)시가 기증한 것으로, 그 후 기호일보 근처의 제2패루와 자유공원으로 오르는 충계에 있는 제3패루가 더 세워졌다.

패루를 지나 차이나타운에 들어서면 오래된 중국풍 건물과 화교학교 등 중국 특유의 문화를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그래도 차이나타운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자장면일 터. 북성동사무소 사이에 난 작은 길에 들어서면 근대문화재 제246호로 지정된 중국 요리집 공화춘(共和春)이 나온다. 공화춘은 100여년 전 우리나라 자장면의 역사가 시작된 곳으로 한 때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미식가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하지만 지금은 간판을 애처로이 매단 텅 빈 공간만이 옛 이야기를 읊고 있다.

패루길 뒤편에 자리한 화엄사는 1850년대에 창건한 우리나라에서 단 하나뿐인 중국 절이다. 이 곳에는 옥황상제, 부처, 신선 등 10개의 목각 신상이 모셔져 있다. 오랫동안 의선당(義善堂)으로 불리며 소림사 무술을 연마하기도 했으나 현재는 기도를 드리는 데 충실하고 있다.

차이나타운 2길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화교학교인 중산(中山)학교가 있다. 이 곳은 원래 구한말 청국 영사관이 있던 자리로 1902년 화교 아이들의 배움터가 되었다. 황금빛 전통문양이 새겨진 붉은 문과 학교 담에 그려진 삼국지 벽화에서 중국색이 강하게 전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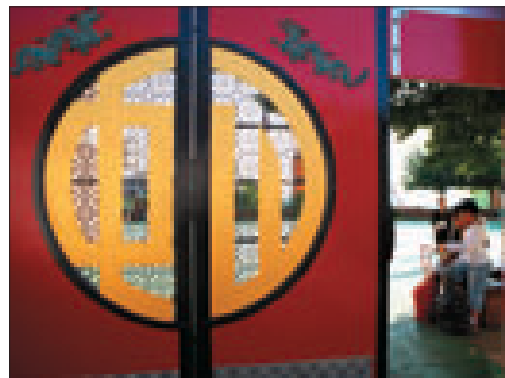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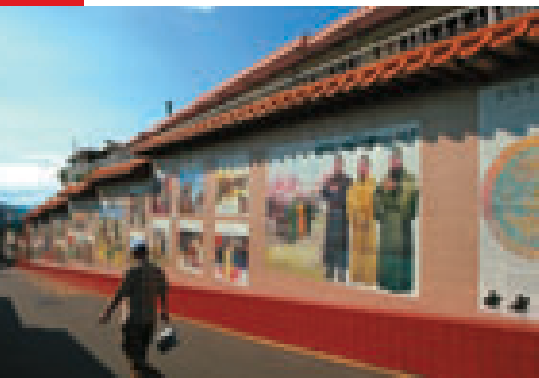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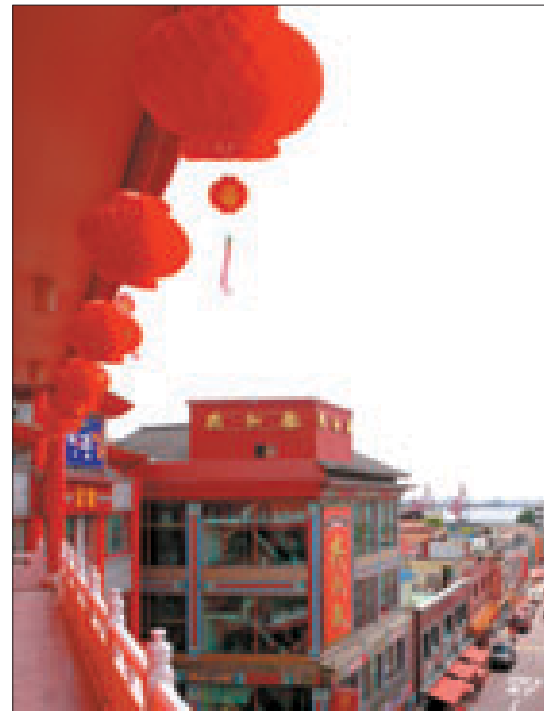
중산학교 옆에는 중국가옥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자리하고 있다. 녹색 페인트칠이 군데군데 벗겨져진 2층 목조건물에서 긴 세월의 흔적이 느껴진다. 이런 이유로 <육남매>, <내 마음을 뺏어봐> 등 드라마와 영화의 배경이 되기도 했다.

중국가옥의 오른편에는 구한말 청국지계와 일본지계를 나누었던 돌층계가 놓여 있다. 계단 양쪽에 석등이 줄지어 서 있는데 이 또한 중국식과 일본식으로 나뉘어 있다. 계단을 오르면 온화한 얼굴로 차이나타운을 굽어보는 공자(孔子)상과 마주한다. 3m 높이의 이 석상은 2002년 중국 칭다오(靑島)시가 기증한 것이다.

역사가 살아있는 공간

차이나타운에는 역사와 함께 살아 움직이는 문화가 공존한다. 제2패루 옆에 있는 한중문화관은 한국과 중국의 문화를 아우르며 두 나라 문화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곳은 지상5층, 지하1층의 규모로 한중문화전시관과 기획전시실을 비롯해 정보검색실, 우호도시홍보관, 공연장 등을 갖추고 있다. 11월 20일까지 '중국 희귀 소장품 특별전'을 열어 중국 고대부터 청대에 이르는 유물 200여점을 만날 수 있다.

차이나타운 주변에도 볼거리가 많다. 일본인들의 집단거주지였던 중구청 앞 길에는 일본식 거리가 조성돼 중구에 새로운 색을 입히고 있다. 황동빛 금속기와와 일본식 창틀이 달린 고동색 건물에서 이국적인 냄새가 물씬 난다. 근처에 일제시대의 일본 제일은행, 18은행, 58은행 등의 석조건물이 그대로 남아있어 일본식 거리와 연계해 역사여행을 떠날 수 있다. 한중문화관 ☎ 760-7860~5



Chinese in Chinatown

“중국에 있는 듯 친근해요”



주사위(朱思玮) 인천대학교 중국교환학생

중국의 정취를 가득 담은 차이나타운. 이 곳은 국내뿐 아니라 외국에서 온 여행객들이 찾는 여행코스로 연간 관광객이 60만~70만명에 이른다. 주말이면 차이나타운 거리는 홍콩이나 대만에서 온 관광객들로 북적인다. 차이나타운 거리의 한 중국 용품점에서 중국에서 온 유학생 주사위(朱思玮) 군을 만났다. 한국 이름은 주민호라고 말하는 그는 한국에 온 지 11일이 된 인천대학교 교환학생이다. 중국 사람이 바라보는 차이나타운은 어떤 모습일까?

“한국 특히 이 곳 차이나타운의 분위기는 중국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 같지 않게 정겹고 가깝게 느껴져요. 파는 물건의 가격이 중국보다 조금 비싼 게 아쉽지만, 타운 외에도 주변에 볼거리가 많아 관광하기 좋아요. 친구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어요.”



먹거리 · 쇼핑 즐기기

관광을 즐기다 허기가 느껴지면 중국요리의 풍미로 가득 채우자. 자장면이 만들어진 공화춘은 옛 영광을 뒤로 한 채 사라졌지만, 차이나타운에는 현재 20여곳의 요리집이 중국 전통의 맛을 이어가고 있다. 대부분 주방장이나 사장이 화교 2~3세로 나름의 요리 비법을 자랑한다. 요리를 맛본 후에는 중국 상품을 파는 가게에 들르는 것도 잊지 않는다. 가게마다 매달린 붉은 등과 화려한 치파오는 보는 것만으로도 이국적인 정취에 젖어들게 한다.

전통 자장면부터 공갈빵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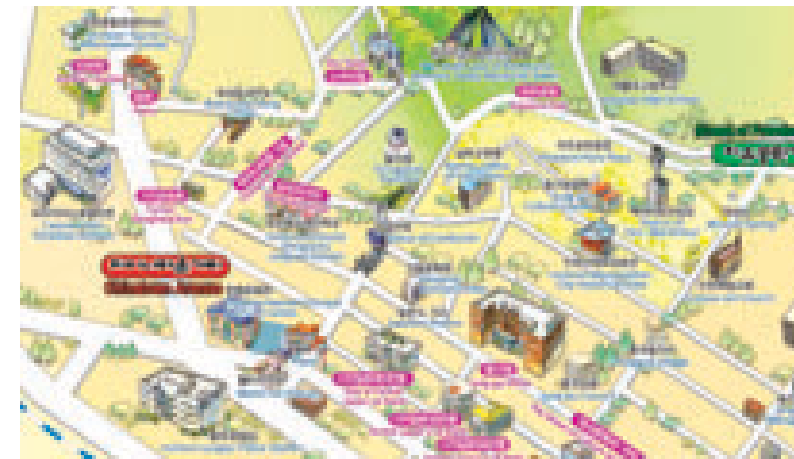
제3패루에서 계단을 내려와 오른쪽 골목으로 향하면 차이나타운 2길이 나온다. 이 거리에는 청관을 시작으로 신(新)공화춘, 자금성 등의 중국 요리집이 줄지어 있다. 청관은 문을 연 지 5년째이지만 수준있는 요리솜씨를 자랑한다. 추천메뉴는 게살면과 게살볶음밥으로 부드러운 게살이 알싸한 소스와 절묘하게 어우러졌다. 사천자장과 고추잡채도 인기메뉴다. 여기에 중세 유럽과 중국풍이 어우러진 인테리어로 편안하게 식사를 즐길 수 있다.

자금성은 공화춘 주방장 출신인 아버지에게서 가업을 이어 받은 화교 손덕준(차이나타운연합회장) 씨가 운영하는 전통 요리집이다. 시에서 지정한 향토음식 지정업소로 특히 자장면 맛이 일품이다. 해산물, 육류, 야채 등 10가지 재료가 옛날 춘장과 어우러져 입안을 황홀경으로 이끈다. 중국 산둥성에서 직접 가져온 부추를 사용한 부추잡채와 고소하면서도 감미로운 식감의 누룽지탕도 인기메뉴다. 손덕준 씨는 자금성 외에도 두 곳의 요리집을 더 운영하고 있는데, 차이나타운 3길에 있는 태화원은 국내 유일의 채식 중국요리집으로 유명하다. 대만에서 배워 온 요리법으로 순수 식물성 재료만을 사용해 맛이 한층 깔끔하고 담백하다. 야채로 만든 탕수육과 라조육 등은 다른 곳에서는 맛 볼 수 없는 태화원만의 별미다. 채식 메뉴판이 따로 준비돼 있으니 주문 전에 미리 부탁한다.

물론 차이나타운에 자장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원보는 차이나타운에서 유일한 중국 전통 수제 만두집이다. 큼지막하게 썬 야채와 고기를 넣어 정성스레 빚어 낸 중국식 왕만두는 한 번 맛보면 결코 잊을 수 없다. 가격도 한 개에 천원으로 인심도 푸짐하다. 화교학교 정문 앞에 있는 복래춘은 100년간 전통을 이어 온 중국 과자점. 매일 구워내는 따뜻한 공갈빵과 잣, 호두, 땅콩 등이 버무려진 월병이 맛나다.



120여년 세월이 배인 차이나타운에 최근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골목골목마다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짓는 공사가 한창인 것이다. 1990년대 화교들이 하나둘 차이나타운을 떠날 때도 한결같이 자리를 지켜 온 풍미도 최근 공사를 마치고 가게를 새로 열었다. 50년간 이어 온 옛 정취가 사라지는 것이 아쉽지만, 긴 세월 이어 온 깊고 풍부한 맛은 변함없으리라. 자금성 ☎ 761-1688, 765-1688 태화원 ☎ 766-7688, 8688 청관 ☎ 772-5118 풍미 ☎ 772-2680 원보 ☎ 773-7888 복래춘 ☎ 772-3522 부안부 ☎ 765-7787 향만성 ☎ 766-2916, 765-2916 주경루 ☎ 764-0307 성림장 ☎ 772-0688 신 공화춘 ☎ 765-0571 북경장 ☎ 766-4455 대창반점 ☎ 772-0937 상원 ☎ 762-0684 본토 ☎ 777-6888 태림봉 ☎ 763-1688, 773-1888



▶ 차이나타운 가는 길

지하철 : 국철(지하철 1호선)을 타고 인천역에서 도보 1분 거리
버 스 : 동인천 대한서림 앞에서 3, 12, 24번 버스를 타고 인천경찰청에서 하차
동인천역 원면에서 마을버스 517번을 타고 인천경찰청에서 하차
자가용 : 경인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 종점에서 월미도 방향으로 약 15분 거리
주차장 : (구)롤러스케이트장, 제물포고등학교, 인성여자고등학교, 송월초등학교 등

진기한 중국 물품을 한눈에

차이나타운 거리에는 약 20여개의 중국 상품점이 있다. 투박하게 써 내린 한자 간판에 화려한 불빛으로 유혹하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면 그 곳이 바로 중국이다.

차이나타운 2길에 있는 중화예원에는 다양한 중국 전통차

와 다구(茶具)가 마련돼 있다. 보이차, 국화차, 장미차, 대나무 잎차 등 각종 차는 몇 천원이면 음미할 수 있다. 화려한 문양이 수놓인 치파오와 장신구, 보석 등 진기한 중국 물품도 시선을 사로잡는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것은 치파오로 어린이용에서 어른용까지, 가격도 1만원부터 30만원대까지 다양하다.



일본인 거리에 최초로 생긴 중국 상품점 호유상무에서도 갖가지 중국 용품을 만날 수 있다. 중국의 장식품과 공예품이 정성스레 정돈돼 있는 데, 화려하여 시선을 끌지만 가격은 생각보다 저렴하다. 수가 곱게 놓인 중국 신발이 5천 원선이다. 이 곳에서 가게 안을 가득 메운 중국 물품들을 구경하노라면 굳이 지갑을 열지 않아도 즐겁다. 🍷 중화예원 ☎ 772-1889 호유상무 ☎ 764-7060

Special Interview

“차이나타운의 미래는 장밋빛”



손덕준(孫德俊) 차이나타운연합회장

차이나타운연합회장이자 요리집 자금성과 태화원의 대표인 손덕준 씨는 차이나타운의 터줏대감이다. 이 곳에서 나고 자라 차이나타운 쇠락과 부흥의 길을 지켜본 그는, 누구보다 차이나타운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다.

“차이나타운은 단순히 화교들이 사는 동네가 아닌 하나의 문화입니다. 화교학교와 중국식 가옥 등에는 중국의 전통문화와 역사가 깃들여 있습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인천에서 만들어져 중국 본토로 역수출되는 자장면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차이나타운은 1883년 처음 이 땅에 터를 잡은 이래 질곡의 역사를 이어 왔다. 하지만 관광특구와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되며 새로운 관광명사로 떠오르는 지금, 차이나타운의 앞날에는 장밋빛 희망만이 가득하다.



청천백일기 휘날리고

북성동 차이나타운을 '차이나타운' 답게 하는 것은 청요리집이나 중국관련 상점이 아니다. 1세기 넘는 긴 시간이 흘렀어도 중국 동네의 정체성을 고스란히 간직할 수 있었던 것은 그곳에 화교학교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글 · 유동현 본지 편집장 | 사진 · 김보섭 자유사진가

한국화교 교육의 시초

중구 북성동 8번지에 자리 잡고 있는 화교학교의 정식 명칭은 인천화교중산 중·소학교(仁川華僑中山·小學校)이다. 중산학교가 설립된 것은 1901년이다. 처음 학교 문을 열었을 때는 초등학교 과정인 소학교로 시작했는데 이것이 한국 화교 학교교육의 효시이다.

화교가 이 땅에 처음 발을 들여 놓은 때는 1882년(고종 19)으로 추정된다. 임오 군란 때 한국에 파견된 군대를 따라 40여명의 상인이 입국하였는데 이들이 한국 화교의 시초가 되었다. 이어 1884년 인천 북성동에 청국조계지(淸國租界地)가 설치되면서 1천여명의 화교가 거주하게 된다. 자연스럽게 아이들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중국 영사부의 주도로 마침내 학교가 설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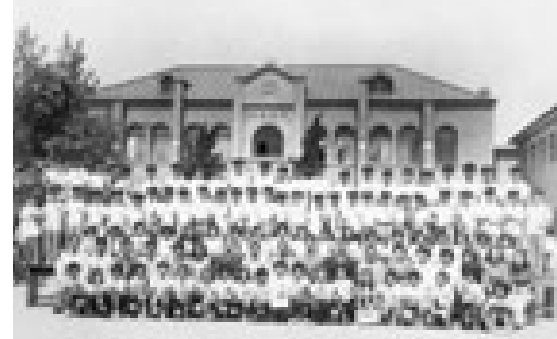
화교학교는 화교사회의 변성과 침체에 따라 그 학생수가 증감했다. 인천의 화교들은 북성동 주변에 모여 살다가 점차 주안, 용현동, 부평 등으로 퍼져 나갔다. 그곳에도 작은 화교사회가 형성되면서 학교가 세워졌다. 1946년에 주안분교, 1951년에 용현분교와 부평분교가 설립되었다. 그곳 분교에서 3학년까지 마치고 4학년 과정부터는 북성동 본교로 와서 공부했다.

그밖에 수원, 평택 등에서 유학을 오는 학생들이 적지 않았다. 그들을 위해 올림픽호텔(현 파라다이스호텔) 밑에 있던 영미연초회사(Chemulpo Tobacco Co.) 벽돌건물을 학교 기숙사로 사용하기도 했다.

17, 8년 전에는 초·중·고 전교생 1500여명에 이르러 농구 코트 두개 크기의 운동장에 함께 모이면 말 그대로 '바글바글' 했다고 한다. 예전에는 소학교 교장, 중고등학교 교장이 따로 있을 만큼 학교 규모가 컸다. 지금은 전교생이래야 443명(초 6학급 278명, 중 3학급 83명, 고 3학급 82명)이다.

현재 한국에 사는 화교 수는 2만6천명이며 이중 인천에 3천700명이 살며 차이 나타난 등 북성동 인근에는 120가구 500여명이 살고 있다.

학생수가 줄다보니 인천중산학교의 자랑인 중국무용단과 밴드부를 꾸려나가기도 힘들게 되었다. 1997년 9월에 창단된 중국 전통무용단은 쌍십절이나 개교 기념일에 화려한 용춤과 사자춤을 선보이며 이국적인 볼거리를 제공했다. 예전에는 쌍십절을 손꼽아 기다려 일부러 학교로 구경 가는 시민들도 적지 않았다. 그날 이 되면 학부모와 구경꾼 그리고 잡상인들로 차이나타운 골목은 온종일 북새통을 이뤘다. 무용단과 밴드부는 인천시민의 날 거리행진에 단골 손님으로 초청되기도 했다.



1
2
3
4
5

1. 1970년대 중반, 졸업식 후 졸업생 기념사진
2. 소학교(초등학교) 수업시간과 화교선생님
3. 학교 정문 계단. 정문 앞에는 중국 월병(月餅)으로 유명한 복래춘이 있다.
4. 1970년대 교내 체육대회 모습
5. 국기 하강식을 한 두 여학생



1	2
3	

1. 중산학교의 운동장, 농구장 두개의 크기다.
2. 중산학교의 전통이자 자랑인 밴드부
3. 농구부는 강팀으로 예전에는 송도고와 인성여고팀과 곧잘 친선경기를 했다.



일주일에 3시간 한글 공부

인천중산학교 운동장에는 중화민국의 국기 청천백일기(青天白日旗)가 휘날리고 있다. 1992년 8월 우리나라와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이 수교하고 중화민국(대만)과 단교했지만 화교학교는 여전히 대만 정부의 소유이고 대만으로부터 학비 보조금을 받는다.

이런 이유로 8월에 1학기, 2월에 2학기가 시작하는 여름학기제 등 교육과정도 대만의 것을 따르고 있다. 그렇지만 화교학교에서는 우리나라 학교와 거의 비슷한 과목을 가르친다. 국문(國文) 시간에는 표준어인 북경어를 배우고 일주일에 3시간 있는 한문(韓文) 시간에는 한글과 한국어를 배우는 게 다를 뿐이다.

인천중산학교 재학생이 모두 화교는 아니다. 초등학교에는 30%, 중고등학교에는 15%의 한국인이 있다. 화교 학생 중에도 아버지가 화교, 어머니가 한국인인 경우가 절반 정도로 순수 화교학생의 비중이 높은 편은 아니다. 얼마 전부터는 중국본토 출신 학생도 15명이 재학하고 있다. 대부분 취업을 위해 한국에 온 조선족의 자녀들인데 점점 느는 추세에 있다고 한다.

지난 8월, 30명 졸업생 중에 8명은 대만대학으로 20명은 한국대학에 진학했다. 한국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주로 한의대, 공대, 무역학과 등으로 진로를 잡고 있는데 수능시험을 위해 방과 후에 학원에 다니는 등 어느 학생과 다를 게 없다. 외국인학교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화교학교에 다니는 한국학



1	2
3	4

1. 인천시민의 날 가장행렬에 참가한 화교 학생
2. 방과 후 정문에서 부모를 기다리는 소학교 학생들
3. 1970년대 생식절 행사 때 학부모와 구경꾼으로 인산인해를 이룬 광경
4. 옛 오리모스 호텔 밑에 있던 기숙사의 여학생방
5. 대만 국경일에 화교협회 건물에 걸린 태극기와 청천백일기

생들은 대학에 가려면 검정고시과정을 거쳐야 한다.

현재 교사는 29명으로 한글선생님 한명을 빼고 모두 화교 출신들이다. 대부분 한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대만에 가서 대학을 마친 후 한국에 돌아와 교편을 잡은 것이다. 지금의 교장 우종정(于鍾正) 씨도 인천중산학교를 마치고 대만사범대학을 졸업한 후 모교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

인천, 하늘빛 꿈으로 날다

시리도록 푸른 하늘 위로 인천이 화려하게 비상한다. 인천국제공항을 품고 있는 우리시는 광활한 세계를 하나로 아우르는 하늘도시. 지금, 가을이라서 더 맑고 푸른 하늘을 바라보자. 그리고 창공을 넘어 세계를 향해 하늘빛 꿈을 안고 날아오르자.

글 ·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 사진 · 김정식 자유사진가 인천국제공항공사

기간 _ 10월 12일(금)~14일(일)

장소 _ 인천국제공항공사 앞 잔디광장

문의 _ 시 항만공항지원과 ☎ 440-3373 www.iiacskyfestival.com



A World Best Air Hub

2007 인천하늘축제

인천국제공항을 품고 있는 우리시는 하늘이 가장 아름다운 가을이 오면 축제를 연다. 올해로 네 번째로 열리는 인천하늘축제는 '월드 베스트 에어 허브(A World Best Air Hub)'를 테마로 인천국제공항공사 잔디마당에서 열린다. 올 가을, 인천하늘축제에서 투명한 하늘을 눈에 담고 마음에 새기며 하늘빛 감성에 젖어보자.

하나. 하늘을 향해 쇼를 하다

축제에 축하무대가 빠질 수 없을 터. 축제를 시작하기 전인 9월 29일 공항공사 잔디마당에서 축하 콘서트가 열린다. 슈퍼주니어, 싸이, 파란 등 내로라하는 인기 가수들이 즐거움을 선사한다. 12일 오후 7시에도 최정상급 가수들의 축하공연이 있다. 13일과 14일 오후 2시에는 스카이 무빙 스테이지(Sky Moving Stage)가 열린다. 공중곡예를 주로 한 서커스 무대로, 하늘 위의 새처럼 자유로운 곡예사의 몸짓에 감탄사가 절로 난다. 13일 6시경에 열리는 스카이 패션쇼(Sky Fashion Show)는 인천국제공항 상주기관 및 항공사 승무원복을 주제로 한 패션쇼다. 대한항공, 프랑스항공 등 9개 항공사가 참여해 특별한 볼거리를 선사한다.

둘. 하늘을 그리다

맑고 푸른 하늘을 캔버스 위에 그려 보는 건 어떨까? 13일에 열리는 Sky 어린이 사생대회는 인천하늘축제의 주요행사로 나만의 하늘을 멋지게 담아내는 시간이다. 유치부와 초등부 학생을 대상으로 열리며 주제는 '하늘을 나는 나의 모습'과 '공항에서의 추억'이다. 대회에 참가해 그림 솜씨

를 뽐내고 싶다면, 10월 11일까지 공항공사 하늘축제 홈페이지(www.iiacskyfestival.com)로 참가신청서를 접수한다.

셋. 하늘 품에 안기다

하늘을 가까이서 느낄 수 있도록 스카이 아카데미(Sky Academy)도 운영한다. 아카데미는 시뮬레이션 체험, 영상 학습, 글라이더제작 등 세 가지 체험행사로 진행한다. 가상의 비행기 안에서 조종대를 잡으면 파일럿이 되어 하늘을 나는 듯한 기분을 만끽할 수 있다. 또 영상교실에서는 전투기의 시뮬레이션 영상을 보면서 비행 조정석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고, 항공산업에 대해 배울 수 있다. 종이 글라이더를 손수 만들어 하늘로 날리는 것도 소중한 추억이 될 것이다.

넷. 희망비행기, 하늘을 날다

유년시절 종이비행기에 소망을 적어 하늘로 띄워 보내던 기억이 누구나 있을 것이다. 하늘축제를 통해 그때의 꿈을 이룰 수 있다. 인천하늘축제 희망비행기 릴플릿에 희망의 메시지를 적어 행사장 내 희망비행기 조형물에 담으면 추첨을 통해 깜짝 행운이 찾아온다. 호텔 숙박권과 DMB폰, MP3 플레이어 등 선물도 푸짐하다.

이 밖에 기증품을 모아 이웃에게 전달하는 Sky 아름다운 가게, 공항에서 수거된 재활용 캔으로 만든 환경작품과 만나는 그린 에어포트(Green Airport) 경진대회 시상식 등 특별한 이벤트가 펼쳐진다.

■ 축제의 자세한 일정은 본지 57쪽을 참고하세요.

인천국제공항, 동북아를 넘어 세계로

인천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자부심이 된 인천국제공항. 오늘도 그 힘찬 날갯짓은 멈추지 않는다. 2단계 공항건설사업을 진행하며 동북아를 넘어서 세계적인 공항으로 비상하길 꿈꾸는 것이다. 오늘 흘린 아름다운 땀방울이 World Best Air Hub로 꽃피는 그날을 기대 해 본다.

세상 앞에 당당히 서다

2001년 인천국제공항이 세상 앞에 모습을 드러낸 그때를 기억한다. 9년간의 건설사업과 9개월 동안의 시운전이라는 기나긴 노력 끝에 대한민국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다. 그 후 인천국제공항은 2005년 여객 1억명 시대를 열며 대한민국 최고의 공항으로 떠올랐다. 그에 걸맞게 수상경력도 화려하다. 2006년과 2007년 2년 연속 세계 최우수 서비스 공항(국제공항협회의), 아시아 최고 효율적 공항(세계교통학회), 아시아 최우수 공항(타임지) 등에 선정되며 세계 속에서 이름을 드높이고 있다.

비상은 멈추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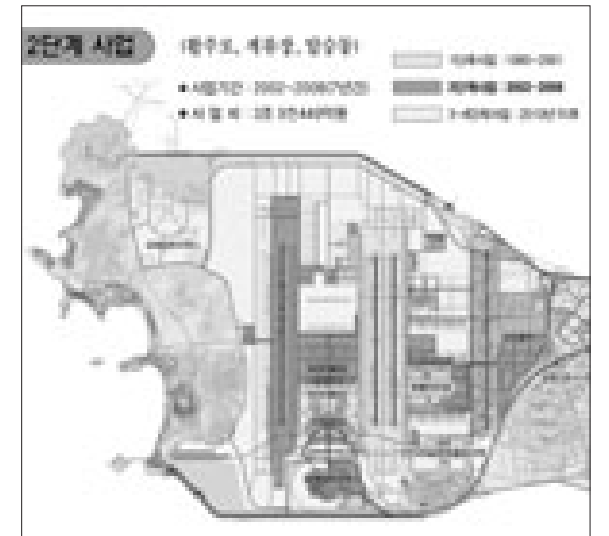
그리고 지금 인천국제공항은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성공적인 개항을 이룬 1단계 건설에 이어 2단계 공항 확장사업의 완료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다. 2002년 공사를 착수해 2008년까지 7년여에 걸쳐 진행되는 2단계 건설사업은 3조9천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주요사업은 제 3활주로 건설, 여객계류장 및 탑승동 건설, 자유무역지역 조성,



국제업무단지 추가 개발 등으로, 1단계 건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사를 착실히 수행해 가고 있다. 2단계 건설사업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운영준비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공항의 운영에 참여하는 상주기관, 항공사 등과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에 필요한 절차와 방침을 세우고,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등 제반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그리고 공항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올 10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시험운전에 들어갈 예정이다.

세계의 허브로 우뚝 선다

2008년 2단계 확장 공사가 완료되면, 인천공항의 활주로는 2개에서 3개로 늘고 여객계류장은 126만7천여㎡에서 243만7천여㎡으로 확대된다. 12만9천여㎡인 화물터미널도 배로 커진다. 또 길이 918m, 높이 34m의 지하 2층, 지상 5층에 전체면적 16만6천㎡에 달하는 새 탑승동은 인천국제공항의 연간 여객처리 능력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것이다. 그에 따라 인천국제공항의 여객수송 능력은 3천만명에서 4천400만명(하루 평균 12만명)으로, 화물처리 능력은 270만톤에서 450만톤으로, 항공기 운항 횟수는 24만회에서 41만회로 증가하게 된다. 거대한 규모에 세계적인 수준의 고객서비스도 더해진다. 매 4~5분마다 건물 사이를 신속하게 운행하는 무인자동열차(IIAC Starline), 정확하고 빠르게 수하물을 운반하는 수하물 처리시설 등 한 차원 높은 서비스가 제공된다. 인천국제공항이 명실상부한 동북아의 허브이자 세계적인 공항으로 발돋움하게 되는 것이다. 🍷



● 사업내용

구 분	1단계	2단계	계
부지조성	11,724천㎡	9,568천㎡	21,292천㎡
활주로	2본(3,750m×60m)	1본(4,000m×60m)	3본
여객계류장	1,267천㎡	1,170천㎡	2,437천㎡
여객터미널	496천㎡	—	496천㎡
탑승동	—	166천㎡	166천㎡
화물터미널	129천㎡	129천㎡	258천㎡
국제업무지역	165천㎡	330천㎡	495천㎡

● 사업효과

구 분	1단계	2단계 완성시	최종단계
운항	24만회	41만회	53만회
여객	3,000만명	4,400만명	1억명
화물	270만톤	450만톤	700만톤

Fly Incheon Project

2010년, 인천항공사 비행한다



우리시는 2010년 저비용 지역항공사(Low Cost Regional Carrier) 플라이 인천(Fly Incheon)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우리시는 지난 7월 항공분야 전문가 11명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지난 9월 동북아지역의 항공운송산업의 발전을 모색하는 국제포럼을 가졌다. 또 올해 말까지 민간사업자를 모집해 특수목적법인

을 만들 방침이다. 그리고 2010년부터 일본 전역과 중국 상하이, 베이징, 칭다오 등 동북아 지역, 국내 주요 도시를 운항한다는 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을 품고 있는 우리시가 지역항공사를 운영하면 명실상부 동북아시아 항공운송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우선 항공기 정비, 조종사 및 승무원 교육 등 연계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그리고 인천국제공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국 및 동남아 국가의 저비용 항공사와의 경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 마천루 세계 하늘을 찌른다

101층에 이르는 대만의 티에프씨 빌딩, 88층에 452m의 높이를 자랑하는 말레이시아의 페트로나스 트윈타워 그리고 2008년 162층, 높이 800m로 우뚝 서게 될 아랍에미리트의 버즈두바이... 1990년 초까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을 상징하던 미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빌딩에 이어 하늘 높은줄 모르고 쪽쪽 뻗고 있는 세계의 고층빌딩 이름들이다. 이제 이 리스트에 송도 랜드마크시티의 151층 인천타워가 오르게 된다.

글 · 정경애 본지 편집위원 | 사진제공 · 경제자유구역청



우 리시는 8월 27일 포트만컨소시엄과 송도 6·8공구 300만㎡에 대한 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본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2월 체결한 양해각서와 7월의 기본협약 체결에 이은 단계별 협약의 일환으로 올해 안에 인천타워를 착공하는 것을 비롯해 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과 마스터플랜에 대한 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포트만컨소시엄은 17조원 규모의 개발자금을 투자해 151층 인천타워를 포함한 국제적인 수준의 랜드마크 도시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로써 올해 말이면 인천타워의 파일공사가 착공에 들어가고 늦어도 2013년이면 151층에 이르는 인천타워의 위용을 볼 수 있게 된다.

도시 브랜딩 효과 최고, 인천타워

대부분의 국제도시들은 랜드마크적인 건축물을 개발해 도시와 국가의 브랜드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추세다. 우리나라 역시 경쟁상대인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 중국의 상해와 홍콩, 싱가포르를 능가할 수 있는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도시, 세계 명품도시를 개발해 국제사회에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알리고 마케팅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고급 브랜드 상품과 같이 개발 대상지의 일관되고 독특한 정체성을 만드는 장소 마케팅전략이 필요하다. 151층에 이르는 인천타워는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강력한 도시 브랜딩 효과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타워의 강력한 도시 브랜드 효과를 통해 유수의 외국기업 유치와 촉진하고 기술력과 도시경쟁력을 증명함으로써 인천의 도시 이미지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인천타워를 품에 안은 랜드마크시티는 송도 경제자유구역의 6·8공구에 들어선다. 이곳은 유기적 형태의 도로와 블록이 호수, 녹지 등과 자연스럽게 연결된 독특한 마스터플랜으로 구상되고 있다. 인천타워와 함께 130만㎡의 인공호수, 호수 주변 상업시설과 수변산책로가 어우러진 상징적인 도시경관으로 조성되는 것이다. 또한 대규모의 수변공간과 유기적으로 연

계된 녹지공간을 통해 쾌적성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수상레저, 골프 등 다양한 여가활동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계획된다.

랜드마크시티의 상징은 단연 151층 인천타워다. 인천타워는 17만㎡의 부지에 약 550m~600m의 높이, 연면적 66만㎡ 규모로 지어진다. 이곳에는 호텔, 도시형 콘도, 사무실, 주거, 상가, 전망대 등이 들어서 복합용도의 건물로 활용되고, 약 73만㎡ 면적의 인공 바다호수는 시민들의 친수공간으로 조성된다.

드림팀, 인천의 드림을 품다

드림시티 개발을 맡은 미국 포트만홀딩스와 삼성물산, 현대건설, SYM으로 구성된 포트만컨소시엄은 가히 드림팀이라 할 만하다. 각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탑 클래스에 속한 기업들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미국 애틀랜타에 본사를 둔 포트만홀딩스는 전체적인 마스터플랜과 개발사업, 자산관리와 운영 등을 담당한다. 포트만홀딩스는 부동산 개발 및 보유, 건축설계 등을 주력으로 해 1953년 설립된 포트만그룹의 개발사업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포트만그룹은 세계 최대규모의 Americas Mart와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건축설계 업체 John Portman & Associates, Inc.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50년간 축적된 설계 경험과 부동산 개발자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아시아 유럽 및 중동에 이르는 3개 대륙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이들은 호텔, 오피스빌딩, 상가, 주거시설 및 레저시설 등 다양한 요소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부동산 개발을 추구하는데 이것이 바로 송도 랜드마크시티에 구현될 것이다. 이들이 개발할 프로젝트의 규모는 약 70억 달러 이상이며 지난 20년간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를 위해 약 400억불 이상의 다양한 자본을 조달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체인 삼성물산은 건설과 시공 및 운영을 담당한다. 말레이시아의 페트로나스타워, 타이페이 101층 티에프씨 빌딩 등 세계적인 초고층 빌딩을 건설한 경험이 풍부하다. 특히 각종 건설 신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층 빌딩으로 기록될 버즈두바이 건설을 담당하고 있어 151층 인천타워를 건설하는데 둘도 없는 적임자라고 할 수 있다.

삼성물산과 동반자로서 송도 랜드마크 시티의 건설과 시공을 담당할 현대건설 역시 국내외, 특히 중동과 동남아 지역의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건설사업과 국내외 주거 및 복합단지 개발에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어 믿음직스럽다. 한편 SYM은 금융자문을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인천타워의 조기착공에 관해 10월 중으로 협의가 끝나면 인천타워의 파일공사가 올해 안에 착공될 것이고 내년 12월 안에는 인천타워 상부시설이 착공에 들어간다. 2013년 인천타워가 완공되고 2018년이면 주변 도시개발이 완료돼 인천은 물론이고 우리나라를 상징할 랜드마크시티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것이다. 🍀



중동 · 아프리카 8개국 대사 인천방문



지난 9월 11일 중동과 아프리카의 8개국 대사들이 인천을 방문했다. 전 세계 57개국 15억 이슬람 문화의 교두보 역할을 할 중동문화원은 아시아 최초로 10월 22일 문을 연다. 모하메드 레다 카멜 엘 테이파이(Mohammed Reda Kamel El-Taify) 이집트 대사 등 중동과 아프리카 8개국 대사들은 이와 관련해 인천시청을 방문, 안상수 시장과 면담을 나누었다. 안 시장은 “한국 중동 · 이슬람 문화교류원이 중동과 아프리카 각 나라와의 교류를 증진시키고,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국내기업들이 중동시장으로 진출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중동문화원에 대한 기대를 비쳤다. 한편 이날 모로코 대사는 면담을 통해 우리사와 모로코간에 자매 · 우호도시를 체결할 것을 요청했다.

문의 | 시 국제협력관실 ☎ 440-2854



주안영상미디어센터 CAMF 개관

주안영상미디어센터(CAMF)가 지난 9월 5일 문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홍일표 정무부시장을 비롯해 인천시의 회 박창규 의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CAMF는 인천시민들이 21세기 영상미디어시대에 맞는 미디어 사용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문화기반 시설. 600여㎡의 공간에 각종 편집시설, 스튜디오, 교육시설 및 강의실, 별도의 상영관(영화공간 주안 4관) 등이 조성돼 있다. 또 영상 및 편집 촬영 강좌를 운영하며, 비상업영화나 다큐멘터리 작품을 만들려는 작가에게는 심사를 통해 창작 활동을 지원한다. CAMF의 시설은 CAMF의 회원으로 가입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문의 | 주안영상미디어센터 ☎ 872-2622

시정홍보 강화로 시민 신뢰 구축

우리시는 지난 9월 10일 ‘열린시정 실현을 위한 시정홍보 강화 정책’을 발표하고 시정홍보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시정홍보 정책에 따라 시는 각 부서와 산하기관 등 90개 부서에 180명의 홍보전담요원을 지정해 시정을 적극 홍보하게 된다. 홍보전담요원들은 자체 홍보계획을 세워 2009 인천세계도시엑스포와 2014 인천아시안게임, 도시재생사업 등 주요시책을 시민과 사회단체 관계자, 지방의원, 기업임원 등에게 이메일로 제공하게 된다. 또 공무원들의 홍보의식을 높이기 위해 부서별로 홍보 분야 정기 평가를 실시해 우수 직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시는 이 같은 홍보정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이달 중으로 공무원교육원에서 전문가를 초청해 워크숍을 열고 홍보전담요원들을 교육할 계획이다.

문의 | 시 공보관실 ☎ 440-2043

인천유나이티드, 코스닥 상장 위한 계약체결



프로축구 인천 유나이티드가 9월 18일 문학경기장에서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대표주관사로 동양종합금융증권을 선정하고 안상수 시장과 전상일 대표이사가 계약체결 조인식을 가졌다. 인천의 이번 코스닥 상장 추진은 국내는 물론 아시아권 최초의 프로구단 상장이라는 의미와 함께 앞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 경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코스닥에 상장되면 기업공개 를 통한 유상증자와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대규모 자금조달이 가능해지고 이에 따라 연습구장, 클럽하우스 건설과 스타플레이어 영입 등으로 경기력 향상 효과도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인천 유나이티드는 상장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면 오는 2009년 하반기 코스닥에 정식 등록될 전망이다.

문의 | 인천 유나이티드 FC ☎ 423-1500

2007 장애인 취업박람회 개최

‘2007 인천 장애인 취업박람회’가 지난 9월 7일 인천중소기업제품종합전시장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장애인 1천5백 여명과 50여개의 기업이 참가했으며, 박람회장은 전문채용관, 취업정보관, 컨설팅관, 체험관, 이벤트관 등으로 꾸며졌다. 전문채용관에서는 기업과 구직자의 일대일 면접이 진행됐으며, 취업정보관과 컨설팅관에서는 장애인을 고용한 우수기업들을 선별해 전시했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이용 책자를 현장에 구비하고, 장애가 있는 구직자에게 채용정보 및 성공취업전략을 수화, 자막, 음성 등으로 전달하는 등 장애인들의 편의를 돕는데 중점을 뒀다.

문의 | 시 사회복지봉사과 ☎ 440-29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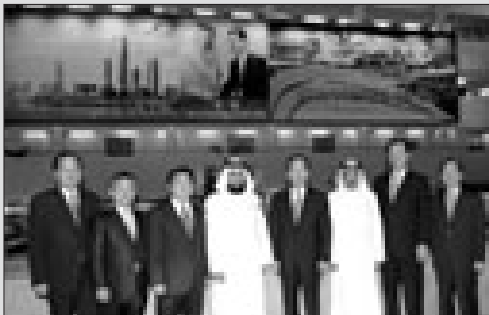


청림물결(Clean Wave) 운동 추진

우리시는 9월부터 깨끗한 인천을 만들기 위한 청림물결(Clean Wave)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청림물결 운동은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깨끗한 인천 만들기 운동으로, 국제행사 유치로 도시브랜드를 높이고 도시인프라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시민의식의 제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전 공직자와 공사 · 공단 임직원부터 시작해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 일반 시민에 이르기까지, 청림실천 서명 및 교육, 역점 클린 시책 추진, 부패 척결을 위한 세미나 개최 등 청림물결 운동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문의 | 시 감사관실 ☎ 440-3183

쿠웨이트 국회의원 방문



압둘라 아케시(Abdullah Akkash) 쿠웨이트 국회의원과 살레 알레네지(Saleh Alenezi) 총리실 IT 담당관 일행이 지난 8월 28일 안상수 시장을 예방했다. 이날 쿠웨이트 방문단은 안상수 시장과 오는 10월 22일 개원 예정인 중동문화원에 대해 논의했다. 그리고 청라지구를 방문해 2012

년 중동문화원이 이전할 부지를 살펴보는 등 향후 중동문화원의 이용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우리시는 중동문화원 건립을 계기로 향후 중동의 자본을 인천으로 유치하고 한국과 중동의 문화 및 관광 교류를 강화할 계획이다.

문의 | 시 국제협력관실 ☎ 440-2854

홍일표 정무부시장, 아프리카 순방

지난 9월 18일 홍일표 정무부시장을 비롯한 우리시 대표단이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시와 콩고민주공화국 킌사사주를 방문했다.

대표단은 케이프타운 한인회 만찬회를 시작으로 헬렌 질리(Hellen Zille) 케이프타운 시장과 데니스 칼룸(Denis Kalume) 콩고 내무부장관, 장 끌로드(Jean Claude Masangu) 콩고 중앙은행장 등을 예방했다. 그리고 25일 킌사사와 자매도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7일 주남아프리카공화국 대사와 환담을 나누는 등 10박 12일간의 외교일정을 진행했다. 우리시는 이번 예방을 통해 아프리카의 주요도시와 경제 · 문화 ·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외협력을 강화하고 시의 위상을 높이게 됐다.

송도에 동북아 E-biz센터 건립



내년 7월 말까지 송도국제도시에 대학과 기업을 잇는 교육연구시설인 동북아 E-biz센터가 건립된다.

지난 9월 4일 E-biz센터 신축공사장인 송도국제도시 인천대 미래관 부지에서 이창구 행정부시장과 박창규 시의회의장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이 있었다. 센터는 국비 56억원을 투입해 인천

대 미래관 부지 중 1만6천500여㎡ 위에 연면적 3천여㎡ 규모로 세워진다. 지난 9월 공사를 시작해 2008년 7월 준공을 목표로 하며, 인천대 동북아 경제통상대학과 2003년 전국 최초로 설립된 물류전문대학원이 입주할 계획이다. E-biz센터가 동북아국제물류와 지식정보 산업의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경제자유구역청 ☎ 453-7083



전국 최대 규모, 인천 영어축제

전국 최대 규모의 영어축제인 '제1회 인천 영어축제'가 지난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연수구 가천의과학대에서 열렸다. 이번 축제는 '영어자유도시'를 표방하는 우리시가 영어교육에 대한 사회적 붐을 조성하고자 마련했다. 개막식에는 안상수 시장, 박창규 시의회의장, 나근형 교육감 등이 참석했으며, 중·고교생 영어 논술 및 토론대회, 전국 학생 영어 경시대회, 공무원 영어 경진대회, 전국 어린이 영어 스피치 콘테스트 등 7개의 영어대회가 열렸다. 또 옥스퍼드대 출신 석학의 영어 공부법 강의와 '인천 영어자유도시,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이 열렸다.

문의 | 시 정책기획관실 ☎ 440-2173

제29회 인천시민상 수상자 선정

우리시는 지난 9월 19일 제29회 인천시민상 수상자 8명을 선정하고 발표했다. 우리시는 18개 기관·단체로부터 시민상 후보 25명을 추천받은 후 심의위원회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했다. 사회공익상에 이문교(55, 남동구 만수2동), 상영규(50, 부평구 일신동), 이영림(46, 연수구 연수2동), 최미자(44, 중구 운서동)씨 등이다. 또 효행상에는 김무부(64, 남구 주안8동)씨, 산업발전상에 이희재(49, 부평구 부평동), 송기환(52, 서구 석남동), 김광익(64, 중구 신흥동)씨 등이다. 시상식은 15일 제43회 인천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있을 예정이다.

문의 | 시 총무과 ☎ 440-2412

청라지구에 외국대학 복합학술단지

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에 해외 우수 대학들이 공동으로 조성하는 '복합학술단지'가 들어설 전망이다. 지난 9월 4일 미국 버지니아 공과대학 등 외국 18개 대학이 학술단지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으며, 오는 11월까지 우선협상대상 대학이 정해지게 된다. 복합학술단지란 여러 대학이 학교시설과 연구센터를 조성해 인력과 지식·기술 등을 교류하는 공동캠퍼스로, 청라지구 내 1·2블록과 3블록 사이 약 25만여㎡에 조성할 계획이다. 청라지구 내 외국대학 위주의 복합학술단지가 들어서면 인천 지식기반의 근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경제자유구역청 ☎ 453-7083

2007 전국어울림골프 인천대회

'2007 전국어울림골프대회'가 지난 8월 24일 남동구 수산정수사업소 잔디운동장에서 열렸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이번 대회에는 장애인 80여명과 비장애인 70여명 등 150여명이 참가했다. 그리고 안상수 시장을 비롯해 국제사회봉사위원연맹 이경재 회장 등 각국 국회의원 20여명이 참석해 선수들을 격려하고 장애인 체육을 직접 체험했다.

문의 | 시 사회복지봉사과 ☎ 440-2672

징매이고개 생태통로 기공식



연희동을 잇는 왕복 8차선의 경명로 위에 12m 높이로 세워진다. 이는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로, 생태통로 바닥에는 2m 두께로 흙을 덮은 뒤 풀과 나무를 심고 연못을 만들어 동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생태통로를 조성하는 데는 국비와 시비 148억원이 투입되며 다음달 공사를 시작해 2009년 5월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문의 | 시 환경보존과 ☎ 440-3532

송도, 해외동포들의 거점으로

송도국제도시가 해외 동포들의 비즈니스의 거점 도시로 뜬다. 우리시는 151층 인천타워 부근 아트센터(Arts Center) 지원단지 내에 한인 국제교류센터 등을 건설해, 송도를 해외 동포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중심지역으로 키울 방침이다. 계획에 따르면 아트센터 지원부지 중 1만9천601㎡에 동포들이 활동하는 한민국제교류센터, 이민사 역사관, 업무용 빌딩, 호텔·콘도미니엄 등을 짓게 된다. 한민국제교류센터에는 해외 동포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콜센터, 무역센터, 각종 정보관 등을 세울 계획이다.

문의 | 경제자유구역청 ☎ 453-7083



ITC 2007 인천정보산업전시회



ITC 2007 인천정보산업전시회가 지난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 '미래를 오늘로!'를 주제로 열린 제6회 인천정보산업전시회(ITC2007)의 개막식에는 안상수 시장, 박창규 시의회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해외 IT 관련 구매 바이어와 해외 IT전문기관들의 국제 비즈니스와 수출상담이 이뤄졌다. 또 화상 이동통신 및 스마트 홈 기술분야, 지능형 로봇분야 등 차세대 신사업 분야와 정보통신 산업분야의 신기술이 대거 선보였다.

문의 | 시 과학기술과 ☎ 440-3434

중국 하얼빈시와 우호교류 의향서 체결

우리시는 지난 8월 30일 중국 하얼빈시와 우호교류 의향서를 체결했다. 이창구 행정부시장과 하얼빈시 왕리(王莉) 부시장은 이날 우호교류 관계 의향서에 서명하고 두 도시의 우호교류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하얼빈시는 중국 동북부 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 중심도시다. 이번 우호교류 관계 의향서 체결로 인천기업이 중국 동북부 지역으로 진출하고, 시베리아횡단 철도를 이용해 물류 분야의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시 국제협력관실 ☎ 440-2833



통계청과 지역통계 업무협약

우리시와 통계청이 지역통계개발과 통계기법 기술도입에 협력하기로 했다. 우리시와 통계청은 지난 9월 7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통계업무의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10인 이내의 통계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정기회를 개최해, 신규통계개발 및 품질관리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그동안 우리시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서비스업 동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역통계를 개발하고자 노력해왔다. 이번 통계협력약정서 체결을 계기로 두 기관의 통계기술이 획기적인 발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시 경제정책과 ☎ 440-2822

:: 교육청 소식 ::

찾아가는 청소년 상담



인천시교육청은 청소년들의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고 진취적 사고를 배양시키는 '찾아가는 이동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동상담축제는 올해 12월 말까지 41개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참여를 신청한 학교는 학교축제기간 동안 이동상담부스를 설치하고 전문상담교사 34명을 배치해 청소년 상담을 진행한다. 이들 전문상담교사들은 청소년 상담경험이 풍부한 전문상담들 중 선발된 이들과 지역사회 상담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상담자원봉사전문가들로 청소년들에게 스트레스 검사, 인터넷 중독, 진로흥미 등에 대해 대면상담을 실시한다.

2007, 책으로 여는 아나바다 도서관증운동



인천중앙도서관은 '2007 책으로 여는 아나바다 도서관증운동'을 통해 도서벽지 초등학교 5개 학교에 아동도서 및 일반도서 2천권을 기증했다. 도서를 기증한 학교는 학교도서관 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한 백령, 대청, 덕적, 해명 초등학교 등과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을 했으나 도서가 부족한 가석초등학교로 각 400권씩 2천권을 기증했다. 이 같은 도서관증운동은 지난 5월에 경찰서, 대안학교, 복지관, 지하철역사문고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2천권을 기증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올 12월까지 진행하게 된다. 한편 기증자에게는 감사장과 기념품, 도서관 우수회원권이 주어지며, 기증도서 중 일부는 중앙도서관의 자료로 등록돼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제공된다. 도서를 기증하고 싶은 사람은 중앙도서관 문헌정보과(420-8415~7)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 인천광역시교육청 ☎ 420-8225



태국 방콕시의회, 인천시의회 방문

인천시의회와 우호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한 태국 방콕시의회가 지난 8월 30일 인천시의회를 방문했다.

방콕시의회 방문단은 사와이 초티가슈파(Sawai Chotigasupa) 제1부위원장 등 19명으로 그동안 시의회를 방문한 외국사절단 중 최대 규모다. 방콕시의회 방문단은 시의회 의장실에서 박창규 의장과 노경수·고진섭 부의장, 유천호 문교사회위원장 등과 두 의회의 우호교류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박 의장은 “방콕시의회 방문은 두 도시가 21세기 아시아시대를 열어 갈 동반자 관계

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동북아의 거점인 인천과 동남아의 거점인 방콕이 동반자가 되어 아시아시대를 열자”며 두 도시의 관계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이에 사와이 부의장은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로 인천이 더 높이 발전하게 된 만큼 경제뿐 아니라 문화·스포츠 등 각 분야에서 두 도시가 활발히 교류하길 바란다”고 답했다. 한편 방콕시의회 방문단은 환담을 마친 후 경제자유구역이 조성되는 송도국제도시 홍보관 등을 둘러보며 인천의 발전상을 확인했다.

제158회 임시회, 주요정책 짚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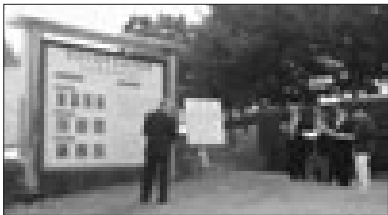


인천시의회는 지난 9월 4일 제1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18일까지 보름간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인천시의회는 5일부터 17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고, 각 기관·부서로부터 주요 업무 보고를 받았다. 그리고 로봇랜드 조성사업 지방자치단

체 의무부담 동의안을 비롯해 동의안 2건, 조례안 9건, 결정안 2건, 계획안 1건, 청원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또 주요사업 현장을 시찰하며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수립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문교사회위원회는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부평초교·가정여중·부원여중 등을 시찰했다. 산업위원회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을 다루고, 13일 경제통상국과 ‘신재생 에너지 개발·이용 관련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상임위 첫날 ‘삼산4지구 공영개발 반대 및 민영개발 청원’을 심사하고, 12일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구간 연장사업 공사현장을 방문했다.

문교사회위원회, 녹청자 도요지 시찰



인천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는 지난 9월 12일 서구 경서동에 있는 사적 제211호 경서동 녹청자 도요지와 도요지 사료관 현지를 시찰했다. 경서동 녹청자 도요지는 우리시 최초의 국가지정 문화재로 단실요가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골프장 내에 위치하고 있어 시민들이 접근하기 힘들고 문화재를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위원들은 도요지 주변의 땅을 매입해 가마터를 원형보전하고, 아직 발굴되지 않은 가마터를 본격적으로 발굴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획행정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 현지지찰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제158회 임시회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해, U-City 홍보체험관 및 복합환승센터 건립부지와 제2시립치매요양병원 건립부지 등을 방문했다. 위원들은 이날 U-City 홍보체험관 및 복합환승센터 건립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을 듣고, 송도 국제도시 내 4필지를 도시개발공사로 현물출자하는 사유와 그 절차 등에 대해 질의했다. 또 계양구 갈현동의 제2시립 치매요양병원 건립 부지를 방문해 인성의료재단에서 우리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신축부지를 둘러보고, 건물 신축계획, 건축비 확보방안, 준공 후 운영 방법 등에 대해 심도있게 질의했다.



몽골 나란바타 체육부장관 일행 방문

2014 아시안게임 유치에 도움을 준 몽골 나란바타 체육부장관 일행이 우리시를 방문했다. 나란바타 체육부장관 일행의 이번 방문은 인천시의회 박창규 의장의 초청에 따른 것으로 지난 8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몽골 방문단은 인천대교 건설현장, 갯벌타워, 삼산월드체육관, 문학경기장 등을 둘러보며 인천의 발전상을 살펴보고,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인천세계오페라페스티벌을 관람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간담회

산업위원회는 지난 9월 17일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 관련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강화 조력발전소 개발 사업에 대해 논했다. 세계 최대의 규모로 세워지는 강화 조력발전소(강화~교동~석모도~서검도)는 강화군과 한국중부발전(주),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민관합자의 제3섹터 방식으로 추진한다. 참석자들은 간담회를 통해 민관합자의 사업추진 방향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올바른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인천산업단지 포럼 2차 세미나

인천시의회는 지난 9월 19일 인천지방 중소기업청 대강당에서 인천산업단지 포럼 2차 세미나를 열었다. 인천시의회 주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우리시와 인천경찰청,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 등이 참여했다. 포럼 참석자들은 ‘남동산업단지 주차문제 개선 방안’을 주제로 남동산업단지의 주차문제에 대해 살펴보고 바람직한 개선책을 논의했다.

자료제공 | 시의회 홍보팀 ☎ 440-6052

인천세계도시엑스포 성공, 선진시민의식 키워야

강창규 인천시의회 의원



40억 아시아인의 축제인 아시안게임이 2014년 우리시에서 열리고, 세계도시엑스포가 2009년 8월 14일부터 11월 1일까지 송도국제도시를 비롯한 49만5천여㎡의 행사장에서 열린다.

2003년 8월 우리나라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고 각종 개발사업을 활발히 진행하며 동북아의 허브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우리시는, 연말아 대규모의 국제 행사를 유치하면서 275만 인천시민들에게 자긍심을 갖게 하고 다른 시·도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이에 우리시는 조직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2년 앞으로 다가온 2009 인천세계도시엑스포를 성공적으

로 개최하기 위해 총력을 다 하고 있다. 특히, 인천세계도시엑스포에 대비해 송도국제업무단지 내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인천대교 완공시기를 2009년 상반기로 앞당기는 등 세계도시엑스포를 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2014 인천아시안게임과 연계해 발전시키기 위해 바쁜 걸음을 걷고 있다. 세계도시엑스포를 인천의 첨단도시테마를 홍보하는 기회로 삼아 시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세계일류 명품도시로서 바이인천(Buy Incheon)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삼겠다는 야심찬 전략으로 해석된다. 더구나, 제7차 APCS(아시아·태평양도시 정상회의)를 유치하는 등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상당히 고무적이다.

우리시와 엑스포조직위원회는 80일간의 도시엑스포기간 중 1천여만명의 국내외 관람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손님이 찾게 될 도시엑스포가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계속 찾고 싶고, 투자하고 싶고, 살고 싶은 인천’이 되게 하려면 꼭 짚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선진시민의식을 갖추는 것이다. 151층짜리 인천타워와 65층의 아시아트레이드타워, 21km 길이의 인천대교가 뿜내는 웅장한 태세를 보며 탄성을 지르다가 뒤돌아섰을 때 무질서하게 움직이는 시민들의 모습을 본다면, 인천은 결코 번지르르한 속빈 강정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 선진시민의식을 고양하는 것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고품격 인프라 구축과 함께 우리시가 내놓은 일류명품도시 조성의 4대 시책에도 포함돼 있는 만큼 인천을 탈바꿈시키는 데 꼭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신호위반하는 버스, 무단횡단하는 시민, 불법광고 전단지가 나뒹구는 거리, 정비 안된 간판 등 무질서가 난무한다. 세계의 명품도시가 멋진 건물이나 도시 인프라로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며, 명품도시라는 브랜드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것이 바로 선진시민의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1천500여억원의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도시엑스포를 두고 혹자는 “인천시가 시민들의 세금부담만 늘리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우려한다. 하지만 이미 화살은 과녁을 향해 출발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도시엑스포가 성공적으로 치러지고 그 효과가 지속되도록 하려면 “시민 스스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고심해야 할 것이다.

선진시민의식이 정착되었을 때 2009 인천도시엑스포와 2014 인천아시안게임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그 파급효과가 일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인천의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고 ‘매력 있는 도시 인천’을 만드는 것임을 명심하자. 더불어 우리시도 도시엑스포와 아시안게임 개최로 인한 경제적 효과만 홍보하고 ‘선진시민의식은 시민들이 알아서 갖춰야 할 몫이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일깨우도록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글의 아름다움 예술로 승화 글빛 한글 서학회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통하지 아니하여서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것을 가엾게 생각하여 새로 스물여덟 글자를 만드니,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 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國之語音異乎中國 與文字不相流通 故愚民有所欲言而 終不得伸其情者多矣

予爲此憫 然 新制二十八字 欲使人人易習便於日用耳

글 · 신은주 인화여고 국어교사 | 사진 · 김정식 자유사진가



중 · 고등학교 시절 외워가면서 공부했던 훈민정음 서문이다. 서문에 담긴 세종대왕의 애민정신, 실용정신, 자주정신의 의도는 다 잊어도 제 나라 글자가 있는 문화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은 간직하면서 살고 있다.

우리가 한글을 의미전달의 실용적인 면이 아닌 예술로서 바라보고 그 미적인 아름다움을 새롭게 발견하게 될 때는 문자의 변화된 모습을 만날 때이다. 옷의 문양으로, 다양한 글꼴로 드러나는 서예에서 우리는 한글의 예술적인 아름다움을 만나 새로운 체험을 한다.

글빛 한글 서학회는 한글서예의 아름다움을 연구하는 모임이다. 1987년에 결성되어 국전초대작가이자 수원대 미술대학원 서예전공 주임교수인 글빛 박혁남 선생의 지도아래 2년에 한 번씩 정기발표

회와 세미나 등을 개최해오고 있는 예술단체이다.

박혁남 선생은 한글의 예술학적 가치에 대해서 한 분야에서 깊이 연구해온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신념을 지닌 사람이다. 1446년 창제되어 궁중 언어로 존재하던 한글을 예술학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한 것은 100년 이내에 불과하다. 그래서 한문서예에 비해 역사가 짧고 미학적 연구는 활발하지 못했다.

실용적인 글씨에서 예술적인 글씨로 한글을 바라보면 한글의 형태는 조형적인 매력이 있다. 단아하고 엄중하면서도 외유내강의 힘이 있는데 이런 감정은 예술로서 한글을 바라볼 때 생겨난다. 서법과 조형이 어우러질 때 서예의 본질이 드러나기 때문에 현대시대에 부합하는 조형성을 추구하면서도 서예적인 미를 잊지 않아야 한다.



한글의 영역은 무궁무진해서 그림과 접목하기도 하고, 돌에 새긴 전각에서 아름다움을 새롭게 드러내기도 한다. 백자의 단순함이 매력이듯이 한글은 구조가 단순해서 회화적으로 풀어낼 수 있어서 앞으로도 연구할 분야는 활짝 열려 있다. 그리고 글씨는 형상도 중요하지만 내용에서 감동시켜야 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글빛 선생의 설명을 듣고 회원들의 글씨를 바라보니 내용에 담긴 의미 역시 미적으로 다가온다. 글빛 회원들은 개인 창작에만 머무르지 않고 문화센터에서 활동하며 한글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있었다.

대림동에서 토마토농사를 지으며 글씨를 쓰는 회원 여숙자씨(62세)는 초등학교 시절 특별활동반에서 접한 붓글씨와의 인연으로 작년에 수원대학교 미술대학원 서예과 1기생으로 석사학위논문 청구 서예전을 여는 데까지 이어졌다. 얼마나 글씨가 좋으면 대학원까지 갔을까? 전시도록을 보여주면서 특별한 열정 때문이 아니라 농사짓는 마음으로 꾸준히 쓰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 편안하게 말한다. 기다림의 미학인 서예를 농사꾼이 꾸준히 농사를 짓는 것에 비유하는 것이 가슴에 와 닿는다. 한글서예의 매력은 궁체에 있는데 마치 색시같이 조용하다고 말하는 여숙자씨 모습 역시 글씨를 닮았다.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붓글씨를 가르치면서 천천히 가는 삶의 이치를 느끼게 해주고 싶다는 소망도 내비쳤다.

이번에 인천시 미술대전에서 서예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김순애씨 역시 붓글씨와 맺은 인연은 초등학교로 거슬러 올라간다. 먹 냄새를 잊지 못하다가 다시 20대에 붓을 잡고 벌

써 20년이 흘렀다고 한다. 글씨를 쓰는 엄마를 보면서 자란 아들과 딸이 엄마랑 함께 서실을 찾아 글씨를 배우기도 했다. 지금은 학업 때문에 중단을 했지만 인성교육으로도 서예는 의미가 있다는 믿음을 드러냈다. 한자 한자 정성을 들어서 글씨를 쓰다 보면 삶 역시 정성으로 가꾸게 될 것 같다.

곧 한글날이 다가 온다. 한글은 세상에서 창제된 연도와 목적, 원리가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의 위대한 글’이다. 세계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해서 세계기록유산으로 1997년에 훈민정음(국보제70호)이 등재되었다. 구한말 시대,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들이 이 작은 나라 사람들이 자기들의 말을 적는 글자가 있고, 집안에 책이 많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오늘의 우리를 만든 것은 바로 ‘한글’이다.

우리 한글의 미적인 아름다움을 살려 예술로 승화시켜 나가고 있는 글빛 한글 서학회는 우리 글의 소중함을 점점 잊고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그 이름처럼 빛나는 존재이다. 🐦

☎ 466-2220



애들아 도서관 가자!

글 · 박소희 인천어린이도서관협의회장



여름방학을 이용해 강원도 용대리에 있는 솔방울어린이도서관과 연계해 ‘어린이사서학교’를 진행했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아이들은 초등학교 4학년 이상으로 각자가 사는 동네의 가장 가까운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결심한 친구들이다. 자연을 벗삼아 진행한 도서관학교의 프로그램은 솔방울어린이도서관의 김정균 관장님이 준비해 주었다. 딱딱한 도서관에서 공부할 것으로 생각했던 아이들은 ‘넷가에서 우리 민물고기 만나기’, ‘세상에서 가장 좋은 흙집 짓기’, ‘소달구지 타기’, ‘감자와 옥수수 맛보기’ 등 자연학습프로그램을 체험하자 환호성을 지르며 좋아했다. 그리고 한참을 뛰어 논 후 밤을 새우며 도서관과 독서문화에 대해 토론을 했다. ‘도서관이란 어떤 곳인가 표현하기’, ‘도서관에 있는 책 분류 방법’ 등에 대해 이야기하며 강원도의 밤이 깊어갔다. “이제 도서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잘 할 수 있겠

니?”라는 물음에 “네~ 아이들이 보고 간 책을 제자리에 꼽을 수 있어요”, “저보다 어린 친구들에게 책을 읽어 줄 거예요”라고 말하는 아이들에게서 아름다운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어린이사서학교를 진행하고 얼마 후 늘푸른어린이도서관을 보수하게 되어 도서관의 책들을 모두 다른 곳으로 옮겨야 했다. 이때 어린이사서학교를 다녀 온 보민이(초4)가 동생 둘과 엄마와 함께 손수레를 가지고 도서관을 찾았다. 엄마가 도서관에 짐을 나르러 간다고 하니 자신도 가고 싶다며 따라 나선 것이다. 이날 보민이는 2시간 동안 꼼꼼히 책들을 실어 나르면서 어린이사서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또 와서 도와줄 수 있겠니?”라고 물으니, 수줍게 웃으며 “예”라고 말하는 아이의 모습이 참으로 예뻐다.

짐을 다 나르고 텅 빈 도서관을 보니 그간의 세월이 낡은 사진첩을 보듯 머릿속에 그려진다. 둘째 아이를 포대기에 걸쳐 업고, 좋은 책을 전시하고 모은 수익금으로 책을 마련했던 일이며, 엄마들과 아침마다 모여 그림책을 읽고 ‘정말 좋다’를 연발하며 감동했던 일, 10년을 늘 이웃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책 읽기를 즐기며 도서관을 찾은 어린 친구들과의 만남... ‘작은 어린이도서관 하나가 지역 사람을 만나게 하고 인정을 나누는 공간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으로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린다. 이제 또 다시 10년을 지역 주민, 어린이들과 책을 읽으며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한다. 내가 사는 동네에 작은 도서관 하나를 짓는 것은 커다란 희망터를 만드는 값진 일이다. 인천 전역에 도서관이 생기고 지역주민 모두가 하나되어 도서관을 일구는 꿈을 꾸다. 혹시 동네 도서관에서 어린이사서들을 만나면 참 좋은 일한다고 칭찬해주길 바란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칭찬 한마디에 어깨 으쓱하며 더욱 열심히 책을 보고 꿈을 키워갈 것이다. 🐦

내 가슴에 새긴 한구절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은 인정받기 위해서이고, 우리가 가끔 무너지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지지를 기대하기 때문일 것이다.”
〈사람 풍경〉중에서 - 김형경 지음

때론 ‘무슨 일을 이리도 크게 벌였을까’ 하며 감당 못할 정도로 쏟아지는 일에 머리가 아프다. 이렇게 힘들 때면 나에게 묻곤 한다. 무엇 때문에 이리 힘들어 하나요, 이렇게 걱정을 해서 얻는 것이 무엇이냐고, 이런 나의 마음을 거울처럼 비추며 생각하게 했던 구절이라 기억에 남는다. 힘들 때면 지지 받고 싶은 기대감이 더욱 크게 마련이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지만,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강해져야 할 것이다.

욱신욱신 손이 저려요



IT 강국인 우리나라에는 가정마다 컴퓨터가 있다. 그만큼 중요하고 편리한 도구이지만 부작용도 많다. 건강의 측면에서 보면 컴퓨터를 너무 많이 사용하다보니 각종 통증으로 고생하게 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모니터를 올려다보면서 머리가 앞으로 빠지는 일자목 증세와 잦은 어깨 결림 및 만성 요통 등이다. 또 ‘손목 터널 증후군(수근관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손목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

손목을 오랫동안 과도하게 사용하고 꺾는 것이 신경을 압박할 수 있고 반복적인 움직임 또한 수근관 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다. 빨래, 설거지, 청소 등 팔목에 힘주는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30~60세의 여성에게서 많이 발견된다. 최근에는 컴퓨터 사용량이 크게 늘면서 손가락과 손목을 이용해 마우스를 장시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청소년이나 직장인 등 연령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등을 위로 젖힌 채로 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손을 한쪽 방향으로만 사용하게 되면 손의 근육과 관절이 특정한 방향으로 비뚤어지게 되는 것은 물론 혈액 순환과 같은 생리적 기능도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결국 손목 주위의 통증이나 부종 혹은 손의 냉증이 발생하게 된다. 수근관 증후군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나 당뇨, 류마티즘 관절염, 갑상선 질환, 임신, 이전의 손목 골절 등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

수근관 증후군의 증상은 손이 마비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며 새끼손가락을 제외한 손이 쑤시거나 저린 감각 이상이 주된 증상이다. 동통은 특히 손과 손목을 많이 사용한 후, 밤에 더 심하고 양측성인 경우가 흔하지만 대부분 많이 쓰는 쪽에 증상이 심한 양상을 보인다. 증상 초기에는 손에 무감각과 타는 듯한 통증을 느껴 잠에서 깨어나는 경우가 많고 이때 손을 움직이고 주무르면 나아지는 증세가 반복될 수 있다. 수근관 증후군이 생기면 병뚜

껑을 열고, 열쇠를 돌리거나 바느질 같은 정교한 동작을 하기 어렵고 물건을 세게 잡을 수 없어 물건을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다.

수근관 증후군의 진단은 먼저 몸의 손상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 골절이나 관절염 등 다른 원인에 의한 손저림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방사선 촬영도 필요하다. 손목을 움직여서 증상이 악화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근전도 및 신경 전달 속도를 측정하면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

수근관 증후군의 치료는 비수술적치료와 수술적치료가 있다. 비수술적치료는 발병 일수가 짧거나 증상이 가볍고 간헐적일 경우, 악화 요인이 사라지면 증상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시행한다. 치료는 수근관 내에 스테로이드를 주사하거나, 비타민 B12나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투여와 손목 부목으로 할 수 있다. 수술적치료는 보존적 치료에 호전이 없을 때, 전형적인 임상 증상을 보이면서 전기진단검사에서 확진되거나 지각둔마, 근위축, 운동마비가 있을 때 시행한다. 횡 수근 인대를 잘라 주거나, 내시경으로 횡 수근 인대를 자르지 않고 수근관 내를 싸고 있는 활액막을 제거하는 활액막 전절제술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수술 후에는 단기간 부목으로 고정해야 하며 물리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좋다.

수근관 증후군을 예방하려면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 손목의 신경이 압박을 받아서 나타나는 증상이므로 손목이 구부러진 상태로 장시간 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컴퓨터 자판과 의자의 높이를 잘 맞추어야 하며 가끔씩 손목, 손가락 등을 움직여 주는 운동을 해 주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목이나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자세로 오랫동안 일을 하지 않는 등 일상생활에서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글 · 전은오 인천광명의료원 신경외과 과장

쫓아도 쫓아도 허물지 못하는 시간의 벽

— 이석인의 ‘신포동 일기’

글·김학균 시인

‘신도 포기한 동네에서 아침을’이라고 표기한 시집을 발송해 준 후배 시인이 있었다. 아마 신포동을 두고 한 말인 것 같다. 시집 속의 시편들을 보면 그곳에서 낳고 자라며 체험(?)한 편린들로 시 작업을 한, 가끔 절망과 수많은 희망을 담은 시집으로 현장적인 것이다. 허나 인천의 문인, 화가, 언론인 등 문화계 인사들 중에서 신포동을 굳이 피해가면 모를까 그냥 지나친 사람들이 있을까 싶다.

저자는 저자대로 생활의 몫을 신포동에 얹어놓고 생활한 입장에서 부르는 노래라 한다면 시인 묵객들은 신포동을 개항장 문화와 더불어 만남의 장소로 더 인식하는 곳이다. 그래서 신도 포기 못한 동네가 아닐까 바꾸어 본다.

시인 이석인은 황해도 연백태생으로 해방과 더불어 인천 수도국산에 정착한 꼬방동네 시인으로 신포동과의 인연은 ‘인천신문’ 사에 근무하며 시작됐다. 1965년 11월 좀 이르다 싶은 첫눈이 함박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동인천역 개찰구는 을씨년스럽기 그지 없

었다. 단구(短軀)의 석인시인은 그날따라 더 작아 보였다. 만남의 이야기는 경동거리를 오르며 시작되어 인천신문사에서 끝을 냈다. 조한길 시인과 손설향 시인을 만나러 갔기 때문이다. 이 만남이 제대하자마자 언론사에 첫발을 디디게 하는 일이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는가.

그 시절 문화부 기자의 역할이 광고도안이 주 업무였다면 우습긴 해도 홍익대학교 미대를 중퇴한 학력이 밑바탕이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1943년 생으로 인천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렵게 홍익대에 진학했지만 가난한 가정생활로 직업전선에 뛰어들지 못한 시인은 경기신문을 거쳐 76년 서울신문사 주간부(주간 스포츠)에 근무했다. 인천문학을 위하여 동분서주하며 제1시집 ‘산우가’를 펴냈고 1976년 12월 제2시집 ‘나무생각’ (시문학사간)을 발간 했다. 경기 문인협회 사무국장을 시작으로 시분과 회장을 두루 거치며 사무능력을 겸비한 성제(이석인 시인의 호)는 노력을 아끼지 않는 동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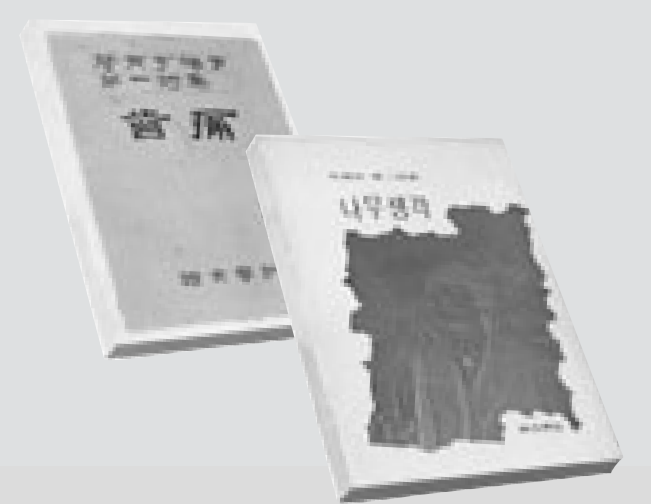
인천문단의 동인지 역사를 꿰뚫어 볼 안목과 실질적인 활동을 주도해온 성제는 ‘사라호’ ‘타원’을 거쳐 ‘삼우문학’ 동인을 필자와 더불어 탄생시킨 주역으로 문단사에 어느 누구 못지않은 업적을 남긴 인물로 평가되는 시인이다. 1990년 ‘학산문학’의 창간주역(문협회장)으로 아쉽게 결실을 보

지 못하고 물러나긴 했어도 시금석이 된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 업보를 본인에게 남긴 일은 아직도 잊을 수 없는 일로 미웁기 그지없다. 술한 우여곡절을 안고 태어난 오늘의 ‘학산문학’을 지하에서 보고 있다면 성제는 노래를 부르고 있을지도 모른다.

제3시집 ‘고치속의 잠’ (80년, 선민출판사) ‘치통’ (85년, 시문학사 제4집) ‘둥지를 떠나는 새’ (89년, 친우 제5시집)를 발간, 시작(詩作) 생활의 부지런함을 내보인 시인으로 신춘문예나 문단추천을 거부하고 시작 능력으로 맞섰던 출중한 시인이었다.

“이석인의 시는 다 펼쳐놓은 병풍이다. 한 폭 정도 접힌 맛이 있을 때 시를 캐는 긴장이 있는 법인데 극히 개인적 감회로 잠적하고 만다. 그러나 그의 시속에는 개인의 삶에 대한 회한으로 그치지 않을 또 다른 열쇠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한 시평이 생각한다. 그렇다 그의 시속에는 현실속의 비상이 있고 아프디 아픈 절규가 있다. 그의 아픔은 ‘둥지를 떠나는 새’ 속에 잘 나타나고 있다는 평자들의 말을 헤집어 보면 생활이 곧 시였고 시가 생활이었음을 잘 보여준 시인이었기에 가능했으리라 생각된다. 인천문인협회장을 지냈으며, 1989년 인천문화상을 수상하기도 한 시인은 위암으로 54세에, 한창 문학의 열정이 영글 시기에 문우들을 버리고 갔다.

그가 가던 날, 세상에 태어나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는 필자는 가끔 그를 꿈에서 본다. 신포동에서..., 신도 포기 못한 동네 주점가에서. ♡



新浦洞日記

한달에 한번쯤일까.

아니면 두어번 가고싶은 골목에 들려 酒店에 자리한다.

그래서 보고싶은 얼굴들을 만난다.

누가 오래서 온 얼굴이 아닌

그저 그렇게 들려서 만난 얼굴들이

해바라기처럼 모여 앉아 술잔을 비워댄다.

술잔을 비워대며 그저 그렇게 살아온 이야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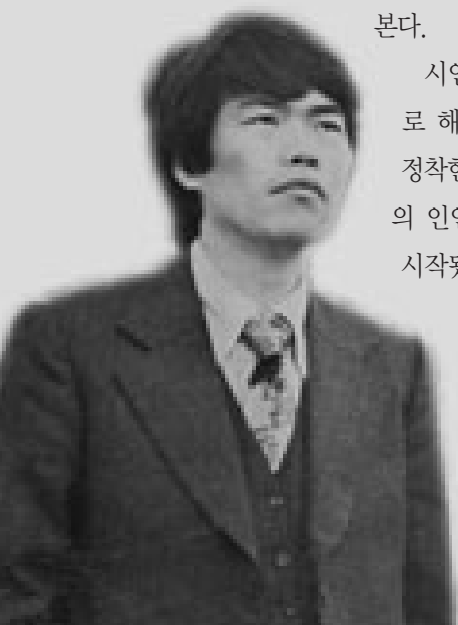
주정처럼 나누다 헤어진다.

그때마다 내게 앙금처럼 내려 앉은 한가지 생각

마치 전고한 부리를 갖지 못한 새 한마리가

쫓아도 쫓아도 허물지 못하는

時間의 壁만 흔들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집트의 보석,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드리아(Alexandria)는 공업과 교육·문화가 고루 발달한 이집트 제2의 도시다. 교통의 요충지이자 해상무역의 중심을 이루는 항구도시로 우리시와 닮은꼴이기도 하다. 우리시와는 지난 2000년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관계를 돈독히 이어오고 있다. 이집트의 보배 알렉산드리아와 우리시가 세계 속의 보석으로 빛날 그날을 기대해 본다.

자료제공 · 시 국제협력관실 | 사진 · 한동건 자유사진가 · 알렉산드리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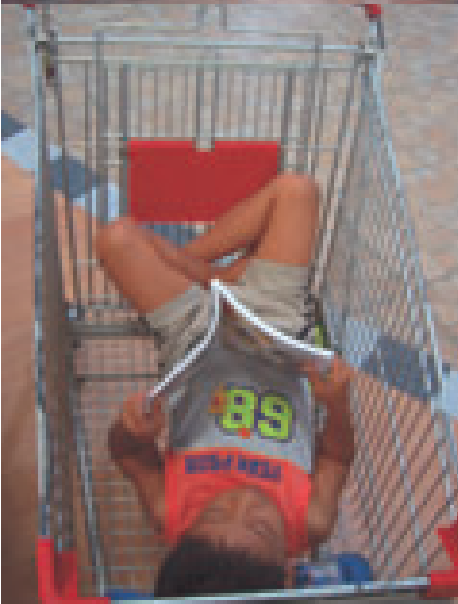
알렉산드리아(Alexandria)는 이집트 북부에 있는 이집트 제2의 도시다. 알렉산드레이아(Alexandria)라고도 부르며 이집트 원어로는 알리스칸다리아(Ai-iskandariyah)라고 일컫는다. 지중해와 마레오티스 호수 사이의 모래톱에 자리한 항구도시로 기후와 풍토가 좋아 왕제(王制) 시대에는 여름의 수도였다. 지금도 140km에 이르는 해변과 문화유적·호텔단지를 갖춘 관광·휴양지로 이름이 높아, 매년 여름이면 2천만명의 관광객이 알렉산드리아를 찾는다. 이집트 최대의 항구도시답게 교통의 요충지이자 해상무역의 중심도시로도 유명하다. 이집트의 수도인 카이로(Cairo)와는 180km 거리에 있으며 철도·도로·내륙수로·항공도로 이어져 있다. 또 자동차·기계·시멘트·석유정제·유리공업 등의 공업과 조선사업과 목화거래 등 상공업이 발달했다. 박물관, 미술관 등 교육·문화시설을 다양하게 갖춘 문화의 도시이기도 하다. 1942년 세워진 알렉산드리아대학교를 비롯해 27개의 고등교육기관이 있으며, 고대 서양학문의 요람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과 그리스로마박물관

등이 있다. 우리시와 알렉산드리아는 2000년 5월 17일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1999년 2월 주한 이집트대사가 우리시에 방문해 자매결연을 통해 두 도시가 교류하길 희망했으며, 그해 3월 주한 이집트대사의 인천 시대표단 초청으로 교류·협력 의견을 교환했다. 그리고 그해 12월 알렉산드리아주정부가 자매결연·경협에 대한 서한문을 보내, 2000년 두 손을 맞잡았다. 두 도시는 자매결연을 맺은 후 지금까지 형제로서의 연을 이어오고 있다. 2000년에는 알렉산드리아주의 초청으로 인천 대표단이 알렉산드리아를 방문했으며, 2002년에는 우리시가 알렉산드리아주 관계자를 2002 한일 월드컵에 초대하는 등 관계를 돈독히 유지하고 있다. 우리시와 알렉산드리아는 경제발전의 허브역할을 하는 공업·항구도시이자 천혜의 자연환경을 품은 해양·관광도시라는 점에서 서로 비슷하다. 앞으로도 두 도시의 협력관계가 긴밀하게 이어져 세계 속의 도시로 함께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 🍀

사촌지간

1996년 2월 어느날 친할머니댁 마루에 앉아서 찰칵. 지금은 할머니 댁이 재개발되어 흔적도 없고 우린 어느새 중·고생이 되고... 사진을 꺼내보니 한편으로는 촌스럽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지만 어느새 추억이 되었네요.

이미순 | 서구 가좌동



여기가 무릉도원이야

강가에서 형이랑 수영하다 춤고 힘들면 바위에 베개 베고 누워 휴식을 취하면서 '여기가 무릉도원이구나!' 하는 것 같네요. 바위가 자기네 침대처럼 편안한가 봐요. 자기들이 찍혔대요. 하루 종일 신나게 놀았답니다.

김상은 | 부평구 산곡동



저처럼(?) 귀엽고 깜찍한 인형사세요!

여름 방학을 앞둔 마지막 시간. 아이들에게 베품시장을 열어보자고 제의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시큰둥 했지만 막상 장터가 펼쳐지자 파는 아이도 사는 아이도 구경하는 아이도 모두 재미있어 했다. 집에서 가져온 작은 인형을 팔려고 나온 아이는 자신의 이야기에 심취했는지 눈까지 지그시 감고 있었다. 물론 그날 장사 수익은 크지 않았지만 모은 돈을 기부하여 뿌듯했고 아이들의 추억에도 한몫 단단히 했다.

장명숙 | 남구 학익동



엄마는 쇼핑 중

엄마와 함께 마트에 온 아이가 엄마가 물건을 고르는 동안 카트 안에서 편안하게 독서삼매경에 빠졌네요. "계산에서 저는 빠주세요~"

김혜진 | 부평구 산곡동

미녀삼총사

여름방학에 서포리해수욕장에 놀러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왼쪽이 딸이고 오른쪽 두명은 조카들입니다. 정말 예쁘죠? 장래희망이 스쿠버다이버래요. 수영은 이미 인어공주 실력이예요. 미녀삼총사들의 스쿠버다이빙 속으로 빠져 보실래요?

김유미 | 중구 내동



김치~찰칵



장원에 도전하세요

〈굿모닝인천〉에서는 독자여러분의 사진을 공모합니다. 주제는 따로 없으며 계절에 맞는 추억의 사진이나 인천의 아름다운 모습, 사연이 담긴 사진 등이면 환영합니다. 사진과 함께 간단한 사연(100자 이내)을 적어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문화상품권 1만원권 1장)을 보내드립니다. 특히 응모하신 작품 중에서 가장 재미있고 좋은 사진은 장원으로 뽑아 문화상품권 1만원권 3장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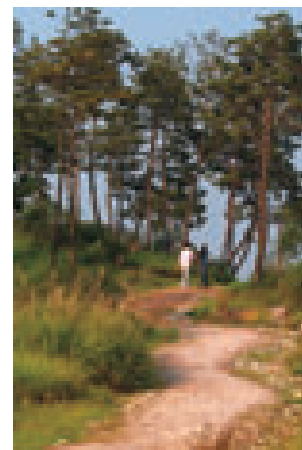


쓰레기, 초록의 꿈을 품다

봄이면 야생화가 흐드러지고, 여름이면 울창한 수목이 그늘을 드리우며, 가을에는 짙은 국화 향기가 코끝을 자극하는 곳. 어느 이름난 수목원이나 테마파크의 얘기가 아니다. 서구 백석동 일대에 자리 잡은 수도권매립지(이하 매립지)의 모습이다. 인천·경기·서울의 쓰레기가 모이는 수도권매립지가 더럽고 냄새나는 쓰레기장이 아니라 꿈과 희망이 자라는 ‘드림파크’로 ‘환골탈태’하고 있다.

글 · 정경애 본지 편집위원 | 사진 ·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매립지로 데이트하러 갈까?



서구 경명로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넓은 길은 대형트럭과 여러 종류의 차들로 분주하다. 그 길을 달리다 오른쪽으로 이어진 수도권매립지도로로 방향을 바꾸니 오가는 차들이 대부분 연한 초록색 옷을 입고 있다. 수도권 여기저기서 모아온 쓰레기를 싣거나 또는 쓰레기를 모으러 가는 차들의 모습이다. 쓰레기차가 지저분할 거라는 생각과는 달리 초록색 트럭은 오히려 산뜻한 느낌을 준다.

매립지 안으로 들어섰을 때, 그 산뜻한 느낌은 계속 이어졌다. 단정하게 자리 잡은 홍보관과 본부건물, 그리고 그 앞에 펼쳐진 푸른 잔디밭 덕분이라. 홍보관 옆으로는 이름모를 실개천이 흐르고, 아치형 다리도 눈에 띄어 언뜻 어느 시골마을의 정취를 느끼게 한다.

홍보팀의 안내를 받아 매립지 견학을 나섰다. 홍보관에 이어 제일 먼저 찾은 곳은 계량대. 매립지 본연의 임무가 시작되는 곳이다. 이어 제1매립장으로 향했다. 92년부터 2000년까지의 쓰레기가 묻힌 곳이다. 매립이 끝나 봉긋하게 솟아오른 제1매립장은 마치 작은 뒷동산 같다. 너른 동산위에 푸른 잔디가 깔려있는데다 악취 따위는 자취도 없어 이 밑에서 쓰레기가 숨쉬고 있다는 것은 짐작도 하기 어렵다.

홍보팀의 안내를 받아 매립지 견학을 나섰다. 홍보관에 이어 제일 먼저 찾은 곳은 계량대. 매립지 본연의 임무가 시작되는 곳이다. 이어 제1매립장으로 향했다. 92년부터 2000년까지의 쓰레기가 묻힌 곳이다. 매립이 끝나 봉긋하게 솟아오른 제1매립장은 마치 작은 뒷동산 같다. 너른 동산위에 푸른 잔디가 깔려있는데다 악취 따위는 자취도 없어 이 밑에서 쓰레기가 숨쉬고 있다는 것은 짐작도 하기 어렵다.

어제 내가 버린 쓰레기가 묻힌 곳, 제2매립장으로 향하니

비로소 악취가 느껴진다. 초록색 트럭들이 분주히 오가고, 커다란 포크레인이 바빠 움직이는데 하얀 새들이 심심치 않게 눈에 띈다. 갈매기다. 아, 여기가 바다를 매워 조성한 곳이라는 것을 잠깐 잊고 있었다. 바다는 사라졌지만 쓰레기봉투 안에 몰래 버린 음식찌꺼기들이 갈매기의 먹이가 돼 주니 바다위를 유영해야할 갈매기가 이곳에 모여들고 있는 것이다.

모두 1천990만㎡에 이르는 수도권매립지는 이렇게 쓰레기가 묻히고, 또 앞으로 묻힐 매립장 4개와 시설단지 등을 품고 있다. 하지만 ‘쓰레기’라는 수식어가 무색할 정도로 향기로운 들꽃이 자랄 수 있는 드림파크로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 선진화된 기술과 기자재를 도입해 친환경적인 매립지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매립장에 이어 찾은 방류수로만 보더라도 쓰레기를 묻을 때 나오는 침출수를 깨끗하게 정화시켜 생태형 하천으로 꾸미고 있어 쓰레기의 더러운 물이라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선입견을 갖지만 앓는다면 데이트코스로도 손색이 없으리라.

환경 테마공원 드림파크

이제 시민들이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발길을 돌렸다. 가장 눈에 띄는 곳은 야생화단지. 연탄재 야적장이었던 곳에 조성한 야생화단지는 계절별로 색깔을 달리하는 야생화가 흐드러진 생태공간이다. 야생초화원, 생태환경체험지구, 자연학습관찰지구, 습지관찰지구로 조성될 계획이다. 야생초화원에는 수국원, 원추리원, 들국화원 등이 군데군데 등지를 틀고 빨강, 노랑, 하양을 자랑하는 들꽃들이 오가는 이들을 유혹한다. 지난해에는 자연학습관찰지구가 들어섰고 지금은 습지관찰지구를 꾸미고 있는 중이다. 봄이면 야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견학, 이렇게 신청하세요

견학은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월요일~토요일 하루 2차례 진행된다. 견학코스는 홍보관에서 10분 내외의 영상물을 시청한 뒤 제1매립장-침출수처리장-제2매립장-유리온실 등으로 구성된다. 견학코스엔 포함돼 있지 않지만 시간이 자유로운 축제 기간 등에는 야생화단지도 가볼만 하다. 보통 한차례 15명~200명까지 1개 단체만 견학 신청을 받는다. 개인도 견학이 가능하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인을 위한 견학코스가 마련된다. 견학 대상은 국내·외 초등학교 이상이면 된다.

견학을 하려면 방문 3일전까지 인터넷 사이트(www.slcr.or.kr)를 통해 예약하면 된다. 홈페이지에서 견학예약시스템에 접속해 견학신청 접수상황표에서 예약 가능시간을 확인한 후 해당시간 예약신청항목을 작성하면 된다. (견학문의 ☎ 560-9430)





생식물전시회가, 가을에는 국화축제가 열릴 때면 청사부터 이곳까지 산책로가 나 있어 들꽃을 따라 걷는 맛은 ‘구름속의 산책’에 다름 아니다.

드림파크를 위해 꽃과 나무를 직접 키우는 농원과 양묘장, 그리고 온실은 좀 특별한 의미를 갖는 곳이다. 온실은 쓰레기를 매립할 때 나오는 가스를 열에너지로 바꿔 온도를 유지하는 친환경 공간이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자란 나무와 꽃은 매립지를 드림파크로 바꾸는 일등 공신이다.

양묘온실에는 미모사, 로즈마리, 쿠페아, 스피아민트, 스테비아, 초콜릿자스민 등 허브를 키우는 작은 화분들이 빼곡히 자리잡고 있다. 온실에 들어서니 기분 좋은 향기가 코끝을 간지른다. 순간 푸른 빛에 눈이 맑아지면서 행복하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스피아민트 잎을 손톱만큼 잘라 입안에 넣어보니 껌을 씹는 것처럼 입안에 박하향이 가득 찬다. 행복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자그마한 이 화분들은 매립지를 견학하는 이들에게 기념품으로 선물되니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 있으랴.

또 다른 온실에서는 국화축제에 쓰일 화분들이 때를 기다리며 자라고 있다. D-day를 위해 하루하루 정성을 먹고 자라는 국화들은 곧 꽃망울을 맺고 아름다운 자태로 태어날 것이다. 커다란 별, 하트 그리고 기린, 나비, 코끼리 등이 온실을 동물원 삼아 자라고 있다. 이제 곧 여러 모양의 국화는 각양각색의 포토존으로 태어나 축제를 찾는 이들의 사랑을 듬뿍 받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발길을 옮긴 곳은 주민체육공원. 축구장에는 미끄러지거나 넘어져도 다치지 않는 초록의 인조잔디가 깔려있어 보기만 해도 가슴이 확 트이는 느낌이다. 축구장을 둘러싼 트랙에는 인라인과 자전거를 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하다. 본부석 맞은편 분수대에서는 시원한 물줄기가 뿜어 나온다. 여름철이면 간이 물놀이를 즐기는 아이들로 분수대가 몸살을 앓을 지경이라고. 이밖에도 테니스장, 농구장·배구장 등을 갖추고 있는데다 산책로도 잘 꾸며져 있어 시민공원으로도 손색이 없다.

1천990만㎡의 수도권매립지를 차량을 이용해 대충 둘러보는데도 꼬박 세 시간 남짓의 시간이 필요했다. 군데군데 보석같이 숨어있는 명소들이 한 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비록 쓰레기 수송이라는 ‘목적’과 안전사고 등의 이유로 출입이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체육시설을 언제든 이용할 수 있어 벌써부터 시민들의 발길이 잦다. 게다가 봄, 가을이면 축제를 통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공공의 쉼터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다.

쓰레기더미 위에 피어난 여러 꽃들과 나무와 풀들. 누가 이곳을 쓰레기장이라 부를 수 있으랴. 우리 곁에 친근하게 다가오는 환경생태공원, 꿈이 실현되는 ‘드림파크’로 멋지게 변모한 것을.

노오란 국화 향에 익어가는 가을 내음



가을에, 국화를 빼고 시를 읊조리거나 낭만을 얘기할 수 있을까? 국화는 가을을 가을답게 만들어 주는 신의 선물이다. 국화가 만개하는 10월 중순이면 우리시 곳곳에서는 국화와 함께하는 축제가 열려 가을을 더욱 풍요롭게 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청사 앞마당을 비롯해 생태연못, 산책로 그리고 야생화단지까지 온통 국화가 흐드러지는 국화축제가 올해는 ‘드림파크 국화와 함께하는 인천환경축제 2007’로 열린다. 10월 19일부터 11월 4일까지 인천환경축제위원회 주관으로 다양한 행사로 열리는 것. 올해는 19일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국화전시회를 비롯해 드림파크 가을음악회 (10월 26일~28일), 건강체험관 운영, 극지방 사진전시회, 자전거 환경투어(10월 26일~28일) 등 다양한 단위 행사가 열린다. ☎ 560-9624~30

인천대공원

인천대공원 꽃전시관에서는 열리는 국화전시회는 이제 인천의 대표 꽃축제가 됐을 정도로 정평이 나있다. 지난해 하루 평균 2만 3천명이 다녀가 총 32만명이 관람한 것으로 집계될 정도다. 올해는 10월 12일부터 25일까지 14일간 국화향기가 인천대공원을 뒤덮는다. 우리시 녹지관리사업소에서 일년 동안 정성으로 가꾼 국화 다룬대작, 코끼리·기린 등 모형작 등 25종 3천여점에 이르는 국화가 전시된다. 특히 다룬대작과



동물모형작들은 최소 10년 이상 정성을 들인 작품이라 가히 최고를 자랑한다. 이밖에도 향토식물 및 향토수종, 꽃꽂이 등 8종 1천점의 꽃들도 함께 전시된다. ☎ 440-6176

강화문예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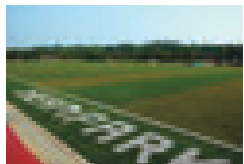
가을이 한결을 더 가깝게 느껴지는 강화에서는 강화 꽃사랑회 회원 60여명이 일년 동안 정성으로 키운 국화를 전시하는 행사가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강화문예회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100송이의 꽃이 아름답게 피어있는 다룬대작 10여 작품을 비롯해, 석부작, 목부작, 일반 입국, 외화재배, 소국, 중국, 대국 등 1천여점의 국화가 아름다움을 뽐낸다. 지난해에는 국화전시와 함께 강화의 야생화를 담은 사진을 함께 전시했고, 올해는 강화의 새를 주제로한 사진작품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작은 이벤트를 마련할 계획이다. ☎ 933-8016

옥토끼우주센터

암스트롱이 착륙한 달과 태양을 둘러싼 여러 행성들의 모습, 그리고 다양한 우주체험을 할 수 있는 옥토끼우주센터에서 ‘가을사랑 국화축제’가 9월 22일부터 10월 28일까지 열린다. 맑은 공기와 물을 자랑하는 강화 길상면에 자리잡은데다 테마파크를 연상시키는 잘 가꾸진 앞마당에 약 1만5천본 80만송이의 국화가 만개해 주위를 온통 국화향기로 채운다. 국화축제 기간 중에는 국화페이스페인팅, 그림그리기 등 부대행사가 마련되고 주말과 휴일의 야간에는 피아노삼중주, 현악삼중주, 색소폰 연주 등이 열려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아울러 전망대에는 천체망원경이 설치돼 가을 별자리 관측도 할 수 있고 강화 속노랑고구마 캐기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돼 탕글탱글 여문 알밤처럼 속이 짙 찬 가을밤을 보낼 수 있다.

☎ 937-6917~9 🍁

체육시설, 이렇게 이용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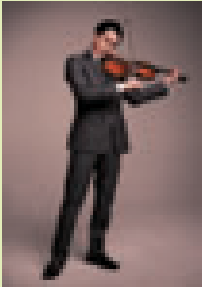
체육시설은 축구장과 테니스장, 기타 시설로 나뉘어져 있다. 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에 살고 있는 인천시민은 물론 다른

사람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축구장은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고 테니스장이나 기타 시설은 예약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축구장 예약 신청자격은 20인 이상의 단체여야 하며, 개인별 연락처가 포함된 팀 명단과 주민증 사본 혹은 초본 1부를 갖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대외협력팀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를 하면 영향권과 비영향권을 구분해 심사한 후 확인증을 발급해 준다. 이용시간은 겨울철(11월~2월)은 오전 8시~오후 6시, 여름철(3월~10월)은 오전 7시~오후 7시이다. (이용문의 ☎ 560-9439)

이렇게 찾아가세요

올림픽대로를 이용할 경우 김포방향 올림픽대로에서 수송도로삼거리를 거쳐 수도권매립지 전용도로를 지나 장기사거리→백석고가차도(독정사거리)→왕길고가차도를 지나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닿는다. 서울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할 경우 일산방향으로 진행해 계양IC→계산3거리→공촌사거리→서부산업단지(주물단지)→북인천C입구(우회전후 직진 1.7km)→종합환경연구단지→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 찾아오면 된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송내역에서 30번(선진교통) 시내버스, 영등포역에서 66번 좌석버스(김포운수), 서울시청에서 1002번좌석버스(김포운수)를 타면 된다.

리처드 용재오닐의 겨울 나그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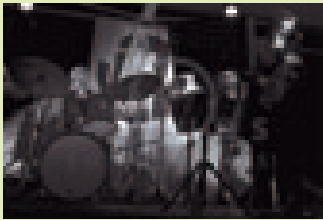
최근 한국 클래식계의 핫이슈로 떠오르며 유니버설 플레티넘상 수상에 빛나는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오닐이 올해 DITTO로 챔버 뮤직 메신저에 이어 3집 솔로 음반을 들고 인천 무대에 선다. 슈베르트 겨울 나그네 중 Viola & Guitar Duo, 아르페지오네 소나타 a단조, 작품 821 등을 들려 준다

일시 _ 10월 30일(화) 오후 7시 30분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_ R석 3만원 / S석 2만원 **문의** _ ☎ 818-5665

재즈공연 Time Out Trio

색소폰 제랄딘 로령, 드럼 로령 바타이유, 콘트라베이스 요니 젤니크로 구성된 Time Out Trio의 연주 특색은 60년대의 아메리칸 재즈를 다양한 각도로 조명한다는 점과 하드 밥(Hard Bop)적인 연주 기법이다.



단순한 기존의 재즈 형식에서 벗어나 그들의 색깔과 유머로 재해석하여 공연장은 관객과 트리오만의 새로운 '재즈실험실'로 다시 태어난다.

일시 _ 10월 12일(금) 오후 7시 **장소** _ 로얄호텔 인천

티켓 _ 1만5천원 **문의** _ 인천프랑스문화원 ☎ 860-8034

혼성아카펠라그룹 DIA



DIA는 '대중적이고 즐거운' 아카펠라를 모토로 2002년에 활동을 시작한 5인조 혼성 아카펠라그룹이다. 2004년 에는 싱글 앨범 1집 'Acappella Party Time'을 발매한 후 라디오, CF, 방송, 콘서트 등 폭넓은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2005년

에는 쇼콜라(쇼+코미디+아카펠라)라는 새로운 장르의 아카펠라 공연을

두달 동안 명동에서 펼쳐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일시 _ 10월 20일(토) 오후 3시

장소 _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씨리재홀

티켓 _ 전석 6천원

문의 _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 760-3455~6 www.iecs.go.kr

6대 광역시 및 제주도 예술교류전

인천, 대구, 대전, 울산, 광주, 부산, 제주 등 7개 지역 예총이 10월 6일부터 12일까지 인천문화회관 소극장(수봉공원)에서 연극 축제를 연다. 2002년부터 이어져 온 이번 행사는 전국의 7개 도시가 매년 한 분야씩 예술교류전을 개최지난해 부산에 이어 올해 인천에서도 '연극, 또 다른 일상의 만남, 色다른 볼거리의 향연, 소통의 장으로'란 부제로 연극 축제가 열린다.

10월 6일 제주(극단 가람), 7일 인천(피어나), 8일 대구(고도), 9일 대전(한밭), 10일 울산(세소래), 11일 광주(푸른마을연극), 12일 부산(극연구집단 시나위) 등 7가지 독특한 색깔의 연극이 무대에 올려진다. 평일에는 오후 7시 30분, 주말은 오후 4시에 공연하며 티켓(5천~1만2천원) 한 장으로 세 개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문의 _ ☎ 868-7196

금요예술무대 Drum Cat 타악퍼포먼스



여성 연주가 5인조로 구성된 타악 퍼포먼스 팀으로 클래식에서부터 빠른 장르의 음악까지 다양한 음악을 구사하는 팀이다. 이번 공연은 옴니버스 형식의 공연으로 타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퍼포먼스를 연출한다.

일시 _ 10월 5일(금) 오후 7시 30분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티켓 _ 무료

문의 _ ☎ 420-2020

인천국제클라운마임축제

클라운 마임은 말을 쓰지 않고 몸짓이나 표정에 의해서 표현하는 무언극으로 피에로와 어릿광대의 마음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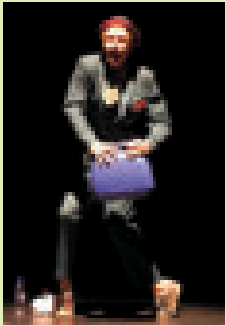
1995년부터 인천서 진행된 '국제클라운마임 축제'는 세계 각국의 마임, 클라운 마임, 너버벌(Non-verbal)아티스트들을 초청해 세계 예술인들과 문화교류를 통해 공연예술 활성화 작업을 벌여왔다. 이번 행사는 올해로 12주년을 맞아 우리나라를 비롯해 프랑스, 스페인, 아르헨티나 등 8개국이 참여한다.

기간 _ 10월 5일(금)~9일(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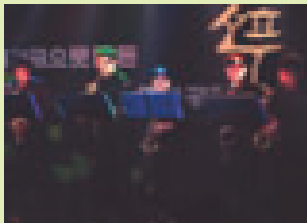
장소 _ 인천도호부청사 야외무대, 작은극장 돌체

티켓 _ 일반 1만2천원 / 학생 8천원

문의 _ 클라운마임협회 ☎ 772-7361



뮤즈퀀텟 색소폰의 향기



뮤즈퀀텟은 인천지역을 연고로 하는 색소폰 연주단체이다. 영화나 드라마 등에서 연주되어 널리 알려진 주옥같은 클래식, 영화음악, 팝, 가요 등을 연주한다. 스크린에 영화의 한 장면이 상영되면서 연주되어 귀로만 듣는 음악이 아닌 눈으로도 즐기는

공연으로 감동 속에 아름다운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무대이다.

일시 _ 10월 13일(토) 오후 7시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티켓 _ 무료 **문의** _ ☎ 420-2020



동화 속 그림 이야기 展

10월 9일(화)부터 16일(화)까지 신세계갤러리에서 열리는 '동화 속 그림 이야기展'에서는 인천 및 서울, 경기 지역에서 활동하는 10명 작가들의 일러스트 작품을 선보인다. 동화와 함께 작가들의 일러스트 원화를 전시하며, 어린이 및 고객들이 출판된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된다. 가족단위의 관람자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뜻뜻한 동심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이다.



9월 21일 ~ 11월 20일 : 중국회귀소장품특별전 / 한중문화관 3층 우호도시 홍보관

10월 2일 ~ 8일 : 신근식 한국화展 / 인천신세계갤러리

10월 5일 ~ 11일 : 목우회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국제 교류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전시실

10월 5일 ~ 11일 : 제11회 황해환경 사진대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미추홀전시실

10월 5일 ~ 11일 : 조명신 개인전 / 갤러리 진

10월 12일 ~ 25일 : 인천문화예술 대표인물 "현덕 특별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전시실

10월 12일 ~ 18일 : 제13회 한·일 여성국제사친교류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전시실

10월 12일 ~ 18일 : 제5회 드로잉미추홀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미추홀전시실

10월 17일 ~ 23일 : 임일택 테라코타展 / 인천신세계갤러리

10월 19일 ~ 25일 : 제21회 인천구상작가회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전시실

10월 19일 ~ 25일 : 연수구 미술인협회그림전(토요채색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미추홀전시실

10월 19일 ~ 25일 : 제9회 화에 조형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미추홀전시실

10월 19일 ~ 25일 : 원로·중견작가전 / 갤러리 진

10월 26일 ~ 31일 : 2007인천국제디자인페어/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전시실

10월 27일 ~ 11월 2일 : 흥윤표 서양화展 / 인천신세계갤러리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0월	2	3 태권전사 라이온 키드킹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1만5천원 극단 유료 ☎ 02-359-7640	4 태권전사 라이온 키드킹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4시, 7시 1만5천원 극단 유료 ☎ 02-359-7640	5 뮤지컬 "바다의 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 5만원, 3만원, 2만원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 420-2768 태권전사 라이온 키드킹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 1만5천원 / 극단 유료 ☎ 02-359-7640 금요예술무대 드림캐트 타악퍼포먼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무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 420-2022	6 뮤지컬 "바다의 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오후 3시, 7시 30분 5만원, 3만원, 2만원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이카멜라 원더풀 한중문화관 / 오후 2시 무료 ☎ 760-7860	7 뮤지컬 "바다의 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오후 3시 / 5만원, 3만원, 2만원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 420-2768 청신년을 위한 해설이 있는 피아노음악여행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 오후 5시 초대 봉경에피아노교육연구소 ☎ 434-7333 인천 아시아 이주민 문화축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오전 11시 / 국제교류센터 ☎ 441-8186
8	9 제5회 남동구 문화예술회 무용분과 정기공연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오후 7시 초대 ☎ 011-445-9791	10 신한은행통합1주년기념 행복한 고객초청 음악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 무료 와이어투와이어 커뮤니케이션 ☎ 02-566-4611 제1회 인천시민의 시낭송의 밤 아이스트링오케스트라 제5회 정기공연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 초대 ☎ 822-1220	11 인천장애인복지시설예술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오후 2시 / 초대 장애인복지시설협회 ☎ 881-5301 제1회 인천시민의 시낭송의 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오후 6시 / 무료 한국문화원연합회 인천시지회 ☎ 765-0267	12 2007 월미국제음악제 인천시립교향악단 뮤지컬 페스티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 1만원, 5천원 인천음악협회 ☎ 876-8646 2007 월미국제음악제 천사들의 합창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 5천원 인천음악협회 ☎ 876-8646	13 2007 월미국제음악제 재즈 페스티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 오후 7시 30분 5천원 / 인천음악협회 ☎ 876-8646 2007 월미국제음악제 아리아의 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 오후 7시 30분 5천원 / 인천음악협회 ☎ 876-8646 노래로 보는 중국여행 '아리랑 낭랑' 한중문화관 / 오후 2시 무료 ☎ 760-7860	14 2007 월미국제음악제 크로스 오버페스티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 오후 7시 30분 5천원 인천음악협회 ☎ 876-8646 2007 월미국제음악제 피아노 듀오 콘서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 오후 7시 30분 5천원 인천음악협회 ☎ 876-8646 제12회 너나들이 정기공연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오후 6시 / 무료 ☎ 011-398-7191
15	16 제40회 인천남성합창단 정기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초대 ☎ 277-1434	17 재능대학생활음악과 정기 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오후 6시 30분 초대 ☎ 890-7290	18 인천크리스찬양상별 제9회 정기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초대 ☎ 528-2854	19 뮤지컬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오후 8시 R석 3만원, S석 2만원 인천8아츠 사무국 ☎ 420-2027~8 제6회 가곡과 아리아의 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오후 7시 / 일반 2만원, 학생 5천원 세종아카데미 ☎ 010-7338-1962	20 뮤지컬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오후 3시, 7시 / R석 3만원, S석 2만원 인천8아츠 사무국 ☎ 420-2027~8 인천7티오케스트라 제1회 정기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오후 6시 / 1만원 ☎ 213-1309 토요상설무대 인천시립무용단 한국무용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오후 7시 / 무료 ☎ 420-2788	21 화인청소년오케스트라 작은음악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오후 4시 초대 ☎ 819-2619
22	23	24 2007 인천안무가전 오후 7시 30분 초대 안무가협회 ☎ 865-5474	25	26	27 파워레인저 매직포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 3만원, 2만원, 1만원 뮤지컬 "사슴아 사슴아" 인천8아츠 사무국 ☎ 420-2027~8 제8회 다래꽃 정기공연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오후 2시 무료 / 인천교사문화재단 ☎ 885-4103	28 파워레인저 매직포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 3만원, 2만원, 1만원 뮤지컬 "사슴아 사슴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오후 3시 / 일반 2만원, 청소년 1만4천원 인천8아츠 사무국 ☎ 420-2027~8
29	30 리처드 용재오닐의 겨울나그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 3만원, 2만원 ☎ 818-5665	31 새얼문화축제 가곡과 아리아의 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 초대 ☎ 885-3611 제7회 출마당 흥미당 인천을 빛낸 별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 오후 7시 30분 1만원, 5천원 / 인천시립무용단 ☎ 420-2788	부평문화사랑방 공연 전석 1,500원 / ☎ 505-5995 • 로멘티카 스트링콰르텟의 '클래식 현(絃)' 10월 5일(금) 오후 7시 30분 • 골목대장 대박이의 개그 SHOW! 10월 12일(금) 오후 7시 30분 • 수녀들의 유쾌한 수다 뮤지컬 '넌센스' 10월 19일 (금) 오후 7시 30분 • 재즈 플러스-Oriental Jazz(동방의 재즈) 10월 26일 (금) 오후 7시 30분			

※ 공연 및 전시는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람 전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세요.

뮤지컬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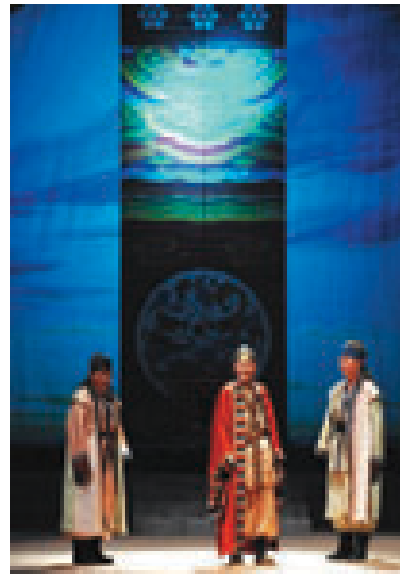
- 일시 : 10월 19일(금) 오후 8시 / 10월 20일(토) 오후 3시, 7시
- 장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티켓 : R석 3만원 / S석 2만원
- 문의 : 인천&아츠 사무국 ☎ 420-2027~8

독 일의 대문호 괴테의 일기체 소설을 뮤지컬 무대로 옮겨 온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롯데에 대한 사랑을 일기에 담담히 고백하듯 써내려간 베르테르의 서정적이고 애달픈 마음을 관객들은 느낄 수 있다. 베르테르가 보낸 편지를 읽듯 무대 위에서 클래식한 선율과 절제된 듯 힘 있고 유연한 몸짓을 배우들이 무대에서 보여준다. 2000년 초연 당시 연출했던 김광보 연출을 중심으로 베르테르 서영주, 롯데 이해경, 알베르트 김법래 등 현재 연극계와 뮤지컬계에서 주목을 받으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배우들이 감동의 무대를 선사한다.

뮤지컬 사슴아 사슴아

2001년 '목종비곡'으로 인천에서 초연한 이후 2006년 인천연극제에서 최우수 작품상, 연출상, 최우수 여자연기자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이어 24회 전국연극제에 인천대표로 출품해 대통령상인 대상, 연출상, 여자연기자상을 수상했다. 이 작품은 997년 18세에 고려 제 7대 왕으로 즉위한 목종이 어머니 천추태후의 잘못된 애정행각과, 정권을 빼앗으려는 김치양과의 대립구도 사이에서 겪는 소외되고 타락해가는 삶을 그리고 있다. 극단 십년후는 그동안 '삼신할머니와 일곱아이들', '박달나무 정원', '꽃님' 등을 무대에 올린 인천의 대표적인 극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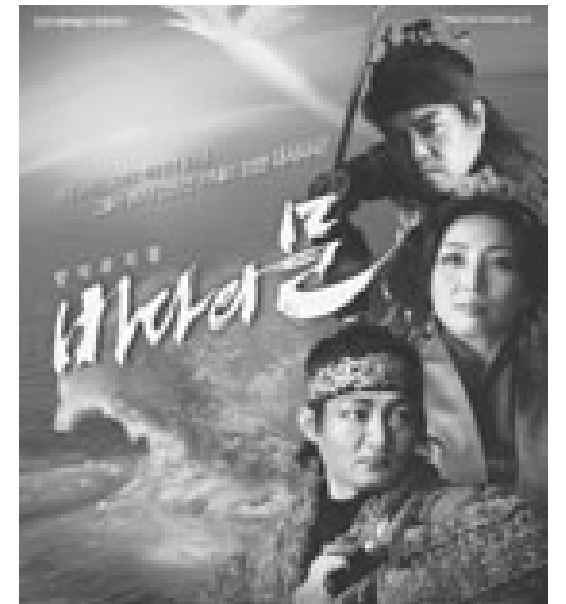
- 일시 : 10월 27일(토) 오후 3시, 7시 / 10월 28일(일) 오후 3시
- 장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티켓 : 일반 2만원 / 청소년 1만4천원
- 문의 : ☎ 인천&아츠 사무국 420-2027~8



뮤지컬 바다의 문



인 천시립예술단이 2천년 전 미추홀로 불리던 인천의 역사를 대형 창작뮤지컬 <바다의 문>으로 살려낸다. 시립극단 이종훈 예술감독이 총연출을 맡은 <바다의 문>은 작가 홍원기, 작곡가 김선하, 안무가 국수호 등 내로라하는 스태프들이 참여한다. 특히 이번 공연에는 국내 정상급 뮤지컬 배우 이태원과 박철호가 각각 소서노와 비류를 맡아 시립예술단 단원들과 호흡을 맞춘다. 시립예술단 합동공연은 지난 2004년의 <심청왕후>에 이은 두 번째 창작뮤지컬로 4개 예술단의 장점을 하나로 엮은 역작이다. <바다의 문>은 주몽과 결별한 비류가 고구려를 떠나 무리들과 함께 수백 척의 배를 타고 미추홀을 찾아오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당시 비류는 미추홀에 비류백제를 세우고, 바다를 근거로 해양제국을 세우고자 했다. 인물들의 대사를 최소한으로 절제하고 노래와 춤, 무예로 드라마가 이루어진 <바다의 문>은 역동적이고 스펙터클한 진행으로 2시간여 동안 관객을 압도한다.



- 일시 : 10월 5일(금) 오후 7시 30분 / 10월 6일(토) 오후 3시, 7시 30분 / 10월 7일(일) 오후 3시
- 장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티켓 : R석 5만원 / S석 3만원 / A석 2만원
- 문의 : ☎ 420-2768

노마와 함께 떠나는 동화여행



인천문화재단은 2007 인천문화예술 대표인 물조명사업 대상자에 작가 '현덕'을 선정하고, 오는 10월 13일(토)부터 25일(목)까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심포지엄과 전시를 개최한다. '현덕' 선생의 본명은 '현경윤(玄敬允)'으로 1909년 2월 15일 서울에서 태어났다. 인천 부둣가를 배경으로 한 소설 '남생이'로 1938년 조선일보 신춘문에 당선된 후 소설·동화·소년소설 등을 발표하며 활발한 작품활동을 벌여 왔다. 그는 대중적으로 친숙한 '노마' 캐릭터를 통해 밝고 낙천적인 동시에 희망을 주는 서민 아동의 생활세계를 표현, 아동문학 분야에서 최고의 반열에 올라서 있는 작가이다. 이번 전시는 '노마와 함께 떠나는 동화여행'이란 타이틀로, 기존의

딱딱한 틀에서 벗어나 온가족이 함께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느낌형 전시로 진행한다. 현덕의 작품에 등장하는 노마·영이·똥똥이·기동이 네 명의 캐릭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일러스트레이션과 체험 프로그램 및 공연이 풍성하게 마련돼 있다. 어린이들은 딱지치기와 구슬치기, 실타래 감기 등 현덕 작품에 등장하는 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또한 어린이도서관협의회 인천지부가 주축이 되어 모인 어머니들이 '나비를 잡는 아버지'는 연극, '고양이'는 그림자극으로, '너하고 안 놀아'는 인형극으로 준비해 전시장을 찾은 어린이들을 신나는 동화의 나라로 초대한다.

- 문의 : 인천문화재단 문화사업팀 ☎ 455-7137 홈페이지(<http://www.ifac.or.kr>) 참조

외국인 묘지와 인천

카툰니스트 · 이영호 (kaljebi@paran.com)

그대들의 값진 생의 보람은 광복과 더불어 슬한 사연을 가슴에 지닌 채 여기 제2의 고향 대한민국에 잠드셨으니

인천 연수구 청학동 산 53번지 외국인 묘지에 있는 비석의 글입니다.

오늘은 인천의 외국인 묘지에 대해 공부해 볼까요~? Let's go~!!

송도역 앞 청학동 야산 기슭에 위치한 외국인 묘지는 인천의 개항과 뿌리를 함께 한다.

이 묘지는 북성동, 을목동, 도화동에 흩어져 있던 외국인 묘를 지난 1965년 한데 모아놓은 것으로 11개국 59명의 외국인들이 잠들어 있다.

1883년 개항 후 각국 열강들이 인천에 상륙하였고

무역, 선교, 의료 등에 관련된 많은 외국인들이 인천에 자리를 잡았다.

인천에 외국인이 많아지면서 자연히 노환, 사고로 사망하는 이들도 생겨났고

거주지 인근 야산을 골라 외국인 공동묘지를 만들게 된 것이다.

흩어져 있던 묘지를 한데 모아 조성한 청학동 묘지에는 열심히 살다가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눈을 감은 외교관, 통역관, 선교사, 선원, 의사 등이 잠들어 있다.

그중엔 성공회 병원에서 인천인들에게 서양의술을 베풀다 별세한 랜디스 박사의 묘지도 있고

랜디스 박사 1865~1898

청국외교관 출신으로 인천 해관에서 구한말 외교 분야에서 많은 활동을 한 오례당의 묘비도 있다.

니 하오~ 오례당

이밖에 인천 외국무역을 주도하던 독일계 '헤르만 헥겔', 타운센 상회의 '월터타운센드' 등의 묘지도 볼 수 있다.

헤르만 헥겔 월터타운센드

현재 외국인 묘지는 단순한 묘지라기보다 역사적인 장소로 의미가 커 외국인과 학생을 비롯한 방문객들이 많이 찾고 있다.

우리나라의 발전에 공헌을 하고, 이국땅에 잠드신 외국분들에게 감사의 꽃을 바칩니다.



토박이 인천 사람 화교협회장

필·명·안 (畢明安)

글·김 류 시인 | 사진·김보섭 자유사진가



필명안 씨. 56세. 한국인천화교협회(韓國仁川華僑協會) 회장. 중국인 특유의 사리를 분별하는 기민한 판단력, 무거운 입. 그래서 그는 별다른 이야기를 해 주지 않는다. 아주 사무적인 말만 몇 마디 하고는 이내 입을 다문다. 그것도 아주 마지못해 하는 듯한 인상이다. 모습은 호걸풍이지만 그는 예민한 것 같다.

협회 사무실 벽에 걸린 사진이 그의 그런 침묵을 더욱 상징한다는 느낌이 든다. 1960년대 언제쯤이었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한 듯한, 대만의 장개석 총통과 나란히 국가 원수 복장을 하고 찍은 사진이 어찌면 그 대답일 거라는 생각이 든다. 두 개의 중국! 그들의 맞고 있는 정치적 현실이 그렇게 만들 수도 있으리라는 생각이다.

당장 이곳 차이나타운에 거주하는 회원만 500여 명. 그리고 그는 전체 3700여 명의 인천협회 회원들을 대표하고 있는 신분이다. 말을 골라야 할 것이다. 그다지 큰 키는 아니지만 대단히 부한 몸집의 필 회장은 그래서 더 과묵해 보인다. 게다가 다른 화교들과 달리 그는 우리말에 많이 서투르다.

무슨 말을 해야 하나. 그와 각별히 친밀해서도 아니고 또 그와 공적인 일이 있어서 만나게 된 것도 아니다. 이제 좀 있어 10월이면, 인천에서 몇 해째 열리고 있는 한·중 두 나라 축제가 다시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차이나타운에

“

그들은 조용히 살고 있다.
그들만의 그 느긋함, 결코 바쁘지
않은 ‘느림의 미학자’들.
그들의 정태(靜態)가 옛보인다.

”



생각이 미쳤고, 그와 이런저런 이야기 몇 마디라도 나누고 싶어서 왔던 것인데 그는 기본적인 코멘트만 하고는 마는 것이다. 가까스로 말문을 연 것은 그의 선친이야기로 화제를 돌렸을 때였다.

“아버지 고향은 산동성 용성이라는 곳이에요. 물론 일본 시대 때 여기에 오셨지요. 살아계셨다면 금년 104세가 되는데 오시기는 열아홉 살 때 오셨다고 들었어요. 처음 인천에 와서는 노동을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도화동 시장 부근 철길 밑쪽에서 농사를 지으시기 시작했지요.”

알아듣기 좀 어려운 그의 발음이었지만 도화동이라는 말에 귀가 번쩍 된다. 더구나 그가 7살 때 쑥골로 이사했다는 말을 듣고는 와락 친근감이 들면서 또 한편 비상한 관심이 쏠리는 것이다. 맞다. 쑥골에는 여러 가구의 중국인들이 농사를 지으며 살았었다.

“쑥골, 그 도화동 280번지요.”

그는 논이며 밭이며, 자기들 중국인 묘지며, 흥갯집, 일신화학, 황해도 해주에서 피난 왔다는 초기 인천수산고등학교(仁川水産高等學校), 그 앞을 흐르던 수량이 풍부했던 개울과 그리고 개진너로 통하는 산길 옆의 한국인 묘지 따위를 아주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었다.

그가 이쪽보다 네 살이 많으니까, 그는 1959년 무렵에 그리로 이사한 셈이고 이쪽은 1963년에 그리로 들어간 것이 된다. 그러니까 둘은 얼마간 쑥골이라는 공간에서 함께 산 셈이 되는 것이다. 그뿐인가. 그는 쑥골 이전에 제물포역 건너편 남쪽 송의동, 내 선친과 친구이셨던 홍 씨 아저씨네 배밭 옆에서 거주했던 이야기며 와룡양조장, 그 저수지, 소주, 펄펄 수증기와 함께 검은 간장 물 같은 것이 흐르던 개울 이야기, 당시 제물포역 풍경도 빠트리지 않고 술술 이야기하는 것이다.

더욱 그가 태어난 곳이 송의초등학교 뒤 인천남중 자리였다면 이 또 무슨 인연인가. 이쪽은 내동에서 그리로 이사를 해 그 초등학교를 나오지 않았던가. 또 선친의 사업 실패로 이쪽은 그 홍 씨 아저씨 배밭 옆에서 한동안 천막 생활을 하지 않았던가. 마음 반갑기도 하고 녹녹해지기도 한다.

어쩌면 둘은 이렇게 사이 좋게, 물론 서로를 알지는 못한 채 번두리 인천을 비슷하게 헤매며 살았던고? 그리고 오늘 이런 토박이 인천 사람을 화교협회 사무실에서 만나게 되다니. 아무튼 반갑고 묘하기도 하다. 이렇게 송의동과 도화동을 기억하고 있는 한국인 인천 사람도 만나기가 어려운데….

그는 이쪽이 다니던 중학교는 농구경기에서 늘 라이벌이었던 청관(淸館)의 중산중학교(中山學校)를 나왔다. 그들의 유니폼 가슴에 찍어 있던 “中山”을 우리들은 어이없게도 “山中”이라고 읽기도 했었다. 그들은 왼쪽 가슴 위쪽에 “中” 자를, 오른쪽 가슴 아래쪽에 “山” 자를 써 붙였기 때문에 글자는 가로로 왼쪽부터 읽는 것만 알았던 중학생들의 실수였다.

그는 이 중산학교를 나온 후 더 이상 공부는 하지 않고 아버지를 도와 농사를 지었다. 그러다가 1971년 도화시장에 도화반점(道禾飯店)을 개업했다. 29년간 이 음식점을 운영해 자본을 축적했다. 실제로는 25년간이고 나머지 4년은 부인 혼자서 한 것이다. 이 음식점은, 지금은 남의 손에 넘겼지만 동화반점(東華飯店)이라는 상호로 아직도 그 자리에서 영업중이다.

그가 그 후에 차린 회사가 원양물산(遠洋物産)이었다. 냉동 수산물을 취급하는 회사이다. 그러니까 이 차이나 타운 일대의 음식점에 요리 재료를 공급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회사는 탄탄하다. 성가(成家)라면 성가를 이룬 셈이다. 그래서 송의동, 도화동 번두리(?) 생활을 청산하고 청관으로 돌아와 인천화교협회장을 맡은 것이다.

“한·중 수교가 되었다고 해서 별다른 변화가 생기지는 않았어요.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요. 물론 중화인민공화국의 인가를 받을 것은 받고요.”

그들은 조용히 살고 있다. 그들만의 그 느긋함, 결코 바쁘지 않은 ‘느림의 미학자’들. 그들의 정태(靜態)가 옛보인다. 물론 쌍십절 행사도 계획하고 있고 10월 21일 화교의 날, 남이섬으로 갈 야유회도 예정하고 있다. 하지만 아주 조용하다. 옛날처럼 요란하게 다시 춘절(春節) 행사를 해 보라는 말에도 그는 크게 반향을 보이지 않는다. 예산도 부족하고 그런 행사를 치를 인력도 이제는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는 이제 말할 것 다 했다는 듯이 다시 입을 다문다.

청관. 옛날과는 전혀 달라진 차이나타운. 삼 년 전까지만 해도 한 달에 두 번은 서울서 내려오던 옛 친구와 이 청관 일대를 못 잊어 배회하던 생각, 40여 년 전 학생 시절, 일요일이면 사생(寫生) 나오는 미술부 친구들을 따라와 어슬렁거리던 추억, 그보다 더 먼 국민학교에 들어가기도 전 시절, 절대로 청관에는 혼자 가지 말라고 이르시던 어머니에 대한 생각, 그리고 돌아가신 신태범(愼兌範) 박사님과 그의 기억들이 버무려져 바뀐 청관의 분위기와 함께 쓸쓸함을 몰아온다.

‘청관(淸館)이란 공식 지명이 아니라 한국인이 부르던 청국지계(淸國地界)에 대한 통칭이었으며, 지계가 폐지된 후에도 이 이름은 계속 사용되었다. 청국지계는 일본지계와



각국지계에 둘러싸인 약 5천 평의 해변 구릉 지대였다. 일본 지계와는 현 중앙동과 선린동 사이에 있는 중화루를 거쳐 한 국회관에 이르는 언덕길이, 각국지계와는 한국회관으로부터 중국 기독교회를 지나 오림포스호텔 후면에 이르는 언덕길이 경계선이었다. 선린동을 청관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 언덕길 사이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두 개의 큰길을 중심으로 시가지지를 형성했고, 지금 북성동 사무소가 있는 대로가 바로 청관의 변화가였다.’

신 박사님께서 내신 『인천 한 세기』의 구절이다. 글을 쓰신 때가 벌써 20년도 넘는 1983년이어서 호텔 이름도 회관 명칭도 지금은 바뀌었다. 바뀐 내용만큼이나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지만 인천 사람들은 이 글을 읽으면 여전히 특이한 감정으로 가슴 한 구석에 이 인천 속의 청나라가 자리잡는 것을 느낀다.

그런 한국인의 가슴 속을 그가 읽을 수 있을까. 사진작가가 요구하는 대로 포즈를 취하는 중국인 필 회장의 모습을 보며 다시 청관의 변화를 생각해 보는 것이다. 초가을 저녁 노을이 쓸쓸한 것인지, 인간의 본성이 원래 쓸쓸한 것인지….



군인아저씨와의 추억

부친께서 교직에서 정년퇴임을 하셨다. 인천에서 교편을 잡으셨는데 인천이 직할시로 승격하기 이전, 내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경기도 일영과 경기도 파주군 금촌으로 발령이 나신 적이 있었다. 금촌은 전방이라서 군인 가족들이 많이 살았다. 우리 집에도 소령 계급을 가진 아저씨가 가족들과 전세로 사셨다. 아저씨의 딸이 아직 어려서 가끔 같이 놀아 주기도 했다. 또 집 뒤에는 같은 학교 또래 친구가 살았는데, 아버지가 대령 계급을 가진 분이셨다. 나는 자주 친구의 집에 놀러 갔다. 인천이 직할시로 승격되어 인천 출신이신 부친께서 다시 인천으로 발령이 나셨다. 81년 이사를 했는데 매마침 소령 아저씨께서 중령으로 진급하셔서 이사당일 내 옷에 소령 계급장을 달아 주면서 건강하게 잘 지내라고 말씀하셨다. 우리 주변에는 각자의 직업을 통해서 삶을 영위하며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분들이 많다는 것을 느낀다.

오원택_연수구 옥련동

3D업종의 불법체류지

나는 인쇄회로기판을 만드는 작은 중소기업에 다녔다. 내가 일하는 곳은 염산이 든 기계 속에 동판을 넣어 녹여내는 일을 하는 곳이었다. 냄새가 심해서 일하기를 꺼려하는 곳이기에 내가 일하기 전에는 외국인들이 일을 했다고 한다. 냄새가 독해서인지 까만색 옷이 보라색으로 변할 정도여서 내일은 꼭 그만뒀어야 하면서 2년 넘게 일을 했다. 내가 지금 이글을 쓰는 이유는 내가 일하기가 전에 일했던 외국인 아기 엄마의 얘기를 하기 위해서다. 이름이 아이샤라는 불법체류자인데 내가 일하기 이틀 전에 잡혀갔다고 한다. 5살 난 아들과 근처 공장에서 일하던 남편까지 차에 태워 갔다는데 그 장면이 너무 애처로워서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이 단속 차원을 넘어 인권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했다고 한다. 회사는 벌금으로 마무리되었지만 같이 일했던 분들이 2년 가까이 아이샤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충격이 대단했던 모양이다. 3D업종에는 어디나 외국인들이 일을 하고 있다. 그들을 따뜻하게 봐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멸시하듯 대하는 사람도 있다. 남에 나라에 와서 고생하는 외국인들을 좀 더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고 단속할 때도 배려를 했으면 한다. 지금은 회사를 그만두었지만 그때 입은 옷은 버리지 못하고 있다. 여기저기 염산 액이 튀어서 입고 다닐 수는 없지만 그때의 마음은 평생 내 인생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김정미_부평구 심정동



아버지의 직업은 경비

어제 아침부터 시작된 비가 오늘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내린다. 아파트 베란다 청소를 하다 문득 밖을 내다보니 경비아저씨가 우비도 입지 않고 재활용 쓰레기 분리작업을 하고 계시는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갑자기 친정아버지가 생각난다. 친정 아버지는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아파트 경비 일을 하신다. 처음 이 사실을 자식들이 알았을 때 참 많이 만류했다. “그동안 그렇게 고생하고 사셨으니 이제 편히 지내셔야죠”, “아버지, 자식 체면이 있지, 왜 그렇게 힘든 일을 하려고 그러세요.”하며 반대했었다. 그때마다 아버지의 대답은 한결같다. “아야, 그런 소리 마라, 무엇이든 할 수 있는데 나이 먹었다고 가만히 손 꿈쩍 않고 오래 사는 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인줄 모르냐?” 하시며 더 이상 말도 못 꺼내게 하셨다. 아버지는 하루 24시간 꼬박 일하시고 다음날은 하루 쉬시는데 이날도 그냥 쉬시는게 아니라 아파트 단지에 버려진 물건 중에서 쓸만한 것을 찾아 잘 손질해 두신다. 어렵게 사는 노인이나 소년, 소녀가장 집에 가져다 주기 위해서다. 나이 들수록 부지런히 움직여야 건강도 유지하고 젊게 사는 것이라고 강조하시는 친정 아버지. 집에서 그냥 계신 몇 년 전보다 훨씬 생기가 넘치시고 건강도 좋아지셨다고 당당하신타 나는 왜 이리 마음이 불편하고 안쓰러운지 모르겠다. 부디 늘 건강하셨으면 좋겠다.

최미연_부평구 삼산동



나는야, 행복 전도사

나를 지금의 기쁨의 자리에 있게 한 직장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사단법인 섬김과 나눔회가 나의 직장 간판이다. 나의 직장 동료들은 거의가 중증 장애를 가진 이들이다. 전동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과 1년이 되도록 함께 웃고, 그들이 필요할 때 운전을 하고, 상담을 하는 일이 내가 하는 일이다. 지난 5월부터는 복지부에서 시행한 장애인 활동보조파견서비스를 연결시키는 코디네이터 일을 보면서 더 많은 장애인들을 알게 되었다. 이 땅에 그토록 많은 장애인들이 존재하는지도 모른 채 살아왔던 나에게 이들은 너무나 크게 내존재를 인식시켜 주었다. 그들의 요구사항을 들어 주면서 작은 부분이지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그로 인해 내가 가는 길이 얼마나 나를 가슴 벅차게 하는지 모른다. 아침마다 휠체어를 탄 장애 아동을 태우고 복지관으로 향하는 나의 일과가 희망과 내일을 실어 나르는 행복전도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장 순_계양구 계산4동

대학 = 대기업

며칠 전 사무실에 자주 오시는 분이 나에게 선 볼 생각 있냐고 하시길래 그 분의 성의를 생각해서 며칠 시간을 달라고 했다. 며칠 고민을 하다가 결혼에 적령기가 어디 있나 하는 생각에 선을 안보기로 했다. 아직은 좀 더 일에 매진하고 싶기 때문이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다. 며칠 후 선 자리를 얘기 하셨던 분이 또 물어 보시길래 솔직히 선볼 마음이 없다고 말씀드렸다. 그러자 그분이 그 사람이 대학은 안나왔어도 돈이 많다면 돈이면 뭐든지 해결된다고 하셨다. 조건이 나빠서가 아니라 아직은 결혼 생각이 없다며 생각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다. 그랬더니 대학 나왔다고 상대방 남자 무시하는 거냐고, 대학 나왔는데 왜 여기 와 있냐고 은근히 작은회사에서 근무하는 나를 무시했다. 대학을 나오면 다 대기업에 근무해야 하는 것인가? 어디서 근무를 하던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생활하면 그 규모가 무슨 상관이라. 직장의 규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보이기 위해 공부한 것 아니고 잘난 척 한 적도 없는데 상대방에게 오해받는 것이 너무 속상했다. 누구나 성공하고 싶은 욕심은 있다. 하지만 본인의 자리에서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직업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선입견을 가지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류현자_부평구 부평4동

직업과의 만남

나도 한때는 큰 뜻을 가슴에 안고 살던 적이 있었다. 영화감독이 되고 싶은 마음에 대학에서 영화를 전공하고픈 생각도 있었고 충무로 방향을 바라보며 가출을 꿈 꾸 적도 있었다. 대학에 합격하면 개그맨이 되어 웃음을 잃고 사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욕심에 거울을 보며 꽤나 연습했던 적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지금 보통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사회복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분들보다 아주아주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분들을 위해 그 부족한 것을 조금이나마 채워드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지만 마음처럼 잘 되지 않는다. 처음 이 직업을 선택했을 때 남들이 이야기하는 봉사정신과 박애정신, 이웃사랑의 실천과 같이 거창한 소명의식도 없이 하나의 직업으로 선택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덧 내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마음을 함께 하게 되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우, 늘 돌봄이 필요한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이 부족한 아이들, 도움이 필요한 모든 분들과 오늘도 함께 하는 우리의 절친한 동료들이 있기에 내 마음은 행복의 구름을 탄 듯하다.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직업의 선택의 기회를 여러 번 만나고 헤어짐을 반복할 수도 있다. 지금 나는 사회복지라는 직업을 만나 벌써 10년을 넘게 사귀고 있다. 노래

가사처럼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기를.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날까지 이 직업과의 만남이 영원한 것이 나의 소박한 꿈이다.

조성은_남동구 만수동

공원 지킴이

학익동 산동네

작은공원 벤치에서 쉬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초가을

폴벌레소리 연주가 아름답다

모자를 꼭쓰고

까맣게 그을린 얼굴에

깡마른 몸매에 쓰레기 자루를 들었다

블럭홀에 박힌 담배 꽂초를 집는다

오가는 행인들은

쉽게 버리지만 줍기는 힘들다

누가 말했나 “쓰레기 줍는 사람이라고”

나는 그를 천사라고 하고싶다

다양한 직업이 많지만

하루 세끼 밥먹고 일하고 놀고

저축하는 평범한 사람들

그들은 행복하여라

길에 뿌려진 쓰레기 줍고

슬고 닦는 걸레가 되어

이웃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들

그들은 세상에 빛이여라

김하주_남구 학익동

다음달 글의 테마는 ‘책’

다음달 테마는 ‘책’입니다.

‘책’에 얽힌 재미있는 에피소드나 사연을 글로 보내주세요(200자 원고지 3매). 사진은 주제와 관계없이 계절과 어울리는 재미있고 사연이 담긴 작품을 보내주세요. 게재된 사진을 돌려받기 원하시는 분에게는 돌려드리겠습니다. 책에 글이나 사진이 실린 분께는 작은 선물(문화상품권 1만원권 1장, 장원은 3장)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주실곳

우편번호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25(구월동 1138번지)

인천광역시청 공보관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인터넷 : goodmorning.incheon.go.kr → 독자마당에 올려주세요.

마감은 10월 16일까지입니다. 응모하시는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접수가 됩니다. (문의 ☎ 440-2072)

A Small Taste of China in Incheon!

차이나타운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중국을 고스란히 체험할 수 있는 '작은 중국'이다. 이곳에는 중국 전통차와 특산물 등을 판매하는 상점을 비롯해 다양한 중국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음식점들이 많이 모여 있다.



Taxi Driver : Hello! Where would you like to go?

Visitor : I was thinking about going to China Town, Is that a fun place to go?

Taxi Driver : China Town is great! You can eat some great Chinese food and see some interesting Chinese architecture.

Visitor : I'd like to buy some souvenirs for my family while I'm there. Are there any stores where I can shop for gifts?

Taxi Driver : Of course! You will find many gift shops where you can buy Chinese clothes, jewelry, and many other things.

Visitor : Is there anything within walking distance of China Town that is worth seeing?

Taxi Driver : Well, next to China Town there is a nice park to walk through named Jayu Park. There are many sculptures in the park to look at and it has a beautiful view overlooking Incheon.

Visitor : Thank you so much for all that information!

Taxi Driver : No problem. Have a fun time.

Visitor : I will! Bye!

택시운전기사 : 안녕하세요? 어디로 모실까요?

관광객 : 차이나타운에 가려고 합니다. 재미있는 곳 인가요?

택시운전기사 : 차이나타운 좋지요! 맛있는 중국요리도 드실 수 있고 재미있는 중국 건축물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관광객 : 저희 가족을 위해 기념품을 좀 사고 싶습니다. 선물을 살 만한 가게들이 있나요?

택시운전기사 : 물론이죠! 중국 의상, 보석 등 여러가지 것들을 살 수 있는 선물가게가 많습니다.

관광객 : 차이나타운에서 걸어서 가볼 만한 곳들이 있나요?

택시운전기사 : 글썄요. 차이나타운 옆에 걸어서 갈 수 있는 자유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에 볼만한 조각상들이 많이 있고, 인천이 내려다보이는 멋진 경관도 있습니다.

관광객 : 좋은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택시운전기사 : 천만에요.

관광객 : 예, 안녕히 가세요!

글 · Christian Calle
인천영어마을(www.icev.go.kr) 강사



중·중 우리말 '꼭' 바로 알기



친구가 알은체도 하지 않고 가 버렸다? (○)
친구가 아는체도 하지 않고 가 버렸다? (X)

'친구가 아는체도 하지 않고 가 버렸다'에서 '아는체'는 '알은체'로 써야 합니다. 서로 보고 인사를 하거나 관심이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을 '알은체, 알은척' 이고 하고, 모르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아는 체, 아는 척' 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만나 봐라, 알은체나 하나'와 '잘 모르면서 아는 체해서 친구들이 싫어한다.'로 구분하여 씁니다.

신뢰인프라 교란사범 특별단속합니다

우리사회에 가짜 박사, 가짜 자격증 등 속칭 짝퉁 문화가 만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모 대학교수의 가짜 학위 파문과 같이 허위·전문자격을 위장하고, 해당 지역에서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사례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지식기반 사회에서 성장 동력의 핵심인 '지식에 대한 신뢰시스템'이 약화되고, '전문자격 인증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야기되어 우리 사회의 산업 경제발전에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검에서는 사회 각 분야에 만연한 가짜·허위를 추방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신뢰 인프라'를 구축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어 '가짜학위' 등 신뢰인프라 교란사범을 특별히 단속합니다.



■ 특별단속기간 : 8월 22일~12월 31일(5개월간)

■ 중점단속대상

- 학위 위조, 경력 조작 등 교육·문화 분야
 - 가짜 석·박사 학위 자격증 위조, 매매
 - 석·박사 학위 취득 사칭 취업행위
 - 논문 대필·표절, 성적위조, 토익·토플 성적표 위조
 -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위조·허위작성
- 자격증 위조, 전문가 자격 사칭 등 전문가 인증분야
 - 가짜 의료인·변호사의 사이비 의료·법률서비스 행위 및 자격증 대여·수수행위
 - 세무사, 노무사 등 국가공인자격증 위조, 관련 서비스 행위 및 자격증 대여·수수행위
- 규격, 품질 등에 대한 국내외 유명기관 인증 위조
 - FDA(미국식품의약국), ISO(국제표준화기구), CE(유럽공동체 품질인증) 등 공신력 있는 해외 유명 기관의 인증 위조, 조작, 이를 이용한 판매 및 과장 광고 판매
 - 식약청 승인, GD마크, KS마크, 열마크 획득 등 인증 관련 위조, 조작, 이를 이용한 판매 및 과장 광고, 판매
 - 국내외 규격 품질인증 관련 부정발급 및 컨설팅 행위

■ 단속방법 : 특수부장(부장검사 박정식)을 반장으로 하고, 검사 3명, 수사관 10명으로 단속전담반을 구성하여 단속 실시

■ 신뢰인프라 교란사범 신고방법

- 인천지검 신고전화(국번없이 ☎ 1301 또는 ☎ 861-5048) 및 인천지검 인터넷 홈페이지(incheon.dpo.go.kr)를 통해 신고 접수
- 신뢰인프라 교란사범 첩보, 신고, 고소, 고발 등은 타 사건에 우선하여 신속처리하고 신고자 및 피해자를 적극 보호할 것임

■ 문의 : 인천지검 국번없이 ☎ 1301 또는 ☎ 861-5048

남인천 중·고등학교 성인반 모집

남인천 중·고등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한 성인을 대상으로 1학년 3학기제를 운영하고 학생을 모집합니다.

- 모집인원 : 중학교 5학급(225명), 고등학교 4학급(180명)
※ 중학교 과정은 수업료 및 교과서 무료
- 입학자격 : 만 20세 이상 성인으로 초등학교(중학교)졸업자 또는 중입(고입) 검정고시 합격자
- 구비서류 : 입학원서 1부 / 초등학교(중학교)졸업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7매 / 본인도장 / 전형료 3,000원

■ 전형일자

- 원서접수 : 10월 1일~선착순 마감
- 원서접수장소 : 본교 3층 교무실(선착순 마감)
- 예비소집일 : 2008년 2월 20일(수) 오전 10시 본교 본관

■ 수업시간

- 주간 : 오전 9시~12시 30분 • 야간 : 오후 6시~오후 9시

■ 문의 : 남인천중·고등학교 ☎ 863-9941~2

자동차보험 개정됩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며 강제 가입 부분과 임의가입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자동차 종합보험제도 중에는 '보험료 분할납입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계약자들이 목돈으로 보험료를 납입할 때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보험계약 체결시 60%, 5개월 후 40%로 보험료를 분납할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보험가입시에는 교통법규위반 기록이 반영됩니다. 보험기간 중 여러 번의 법규 위반이 있어도 최저 할증률은 5%, 최고 할증률은 10%이며, 5~10%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할증 적용은 뺑소니,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1회 이상인 자는 10%를 할증하고,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신호위반 1회 이상인 자는 5~10%를 할증합니다.

특히, 2007년 9월 1일부터는 무면허운전, 뺑소니 사고의 경우 20%를, 음주운전의 경우는 1회일 때 10%, 2회 이상일 때는 20%를 할증합니다. 또한 무면허, 뺑소니 사고의 경우 과거 2년간, 다른 위반 사항은 과거 1년간 위반내역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교통법규위반 기록이 전혀 없는 자 또는 경미한 법규위반자(벌점기록이 없는 법규위반자)는 최고 10% 한도 내에서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적용하여 할인합니다.

■ 문의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인천지부 ☎ 830-6162

시민의날 기념 도호부대제 열립니다



제43회 인천시민의 날을 맞이하여 국태민안과 인천시의 번영, 그리고 인천시민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도호부대제가 열립니다. 이번 도호부

대제는 역대 부사 351인의 공덕을

기리고, 인천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안녕을 기원하며, 특히 2009년 세계도시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합니다.

■ 일시 : 10월 14일(일) 오전 10시~오후 3시

■ 장소 : 인천 도호부청사

■ 주최 : 인천광역시

■ 주관 : (사)인천예총, (사)인천향토총사위연구회

■ 행사내용

1. 식전행사(10:20~11:00)

- 도호부대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전행사
 - 성공적 행사를 위한 판굿
 - 소원성취 전통연날리기, 시민참여행사(민속놀이) 등

2. 대제봉행(11:00~12:00)

- 기념식
- 대제봉행

3. 식후 부대행사(12:00~15:00)

- 음복례-음식나눔행사
- 타악공연
- 통소와 사자춤
- 한중일전통악기연주
- 국악 한마당
- 무예24기 시범공연
- 시민장기자랑, 퀴즈대회
- 체험행사(뽕튀기, 한지만들기, 짬뽕공예 등)

■ 문의 : (사)인천예총 ☎ 873-5174

인천의료원 무료검진 안내

인천광역시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시민 보건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및 의료 소외 계층에게 무료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기간 및 장소 : 10월 8일(월)~10월 12일(금)

인천광역시의료원 2층(산부인과)

■ 진료시간 : 오전 8시 30분~오후 4시

■ 검진명 : 자궁경부암 검사-세포 검사(산부인과)

■ 검진인원 : 100명

■ 문의 : 시 의료원 산부인과 ☎ 580-6123

시 의료원 총무인사팀 ☎ 580-6652

※ 신분증은 꼭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청소년수련관 행사 참가하세요

동구청소년수련관에서는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마련됩니다.

● B-boy & Girls School-저주 받은 관절이라도 껴참아

■ 신청방법 : 수련관으로 직접신청

■ 신청기간 : 9월 15일(토)~선착순 마감

■ 참가자격 : 춤에 관심 있는 남·여 청소년 30명

■ 내용 : Power Move & Style Move 등 기초부터 교육

■ 활동기간 : 9월~11월 2·4주 토요일

■ 문의 : 동구청소년수련관 강지미 ☎ 761-1318

● 외국인과 함께 하는 문화체험

외국인과 함께 즐거운 전통문화, 지역축제를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알리고 외국의 문화도 함께 경험합니다.

■ 참가자격 : 외국인과 친해지고 싶은 청소년 20명(선착순)

■ 내용

- 전통문화 체험 짬뽕공예, 전통탈 만들기 천연염색 체험하기
- 축제참여-인천지역, 클럽마니아 축제 즐기

■ 활동기간 : 9월~11월 2·4 째주토요일

■ 신청기간 : 9월 15일(토)~선착순 마감

■ 문의 : 동구청소년수련관 김규례 ☎ 761-1318

저금리 제도금융권 대출로 바꾸는 「환승론」

■ 환승론이란?

환승론은 연이율 60%대의 고금리 대부업체 이용자 중 거래실적이 양호한 경우 제2금융권 대출(연이율 30~40%대)로 전환해 주는 것으로 금융감독원이 후원하고 서민금융회사가 참여한 가운데 2007년 6월 1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환승론 이용대상

대부업체 거래자로서 부채가 과다하지 않고 소득증빙이 가능한 직장인·주부·자영업자 등으로 금융회사의 세부 대출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 환승론 이용대상자의 신용등급 및 대부업체 거래기간은 원칙적으로 제한 없음

■ 환승론 이용효과

대부분의 대부업체 이용자가 대부업법상 최고금리(연66%)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환승론 이용시 약 1/3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환승론 신청 (인터넷으로 이용가능 여부 확인)

① ‘한국이지론’(www.egloan.co.kr) 접속

② ‘환승론’ 클릭

③ 신청자 개인정보, 직장정보, 채무정보 등 입력

※ 금융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증인자, 채무과다자, 금융기관 대출연체자 등은 ‘환승론’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환승론 신청 문의 : 한국이지론(주) ☎ 02-3771-1119

충전 200% 스포츠 세상 참가하세요

화수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만석체육공원에서 체육의 달인 10월 2주~4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줄넘기대회, 탁구대회 등을 진행합니다. 이번대회는 영양과잉과 운동부족으로 인하여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청소년 비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됩니다. 체육시설이 부족한 동구지역에서 청소년들이 손쉽게 접하고 배울 수 있는 체육종목인 줄넘기 및 탁구 대회를 진행하여 생활 체육의 흥미도를 높이고 청소년들의 체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합니다.

■ 줄넘기대회

• 대회일시 : 10월 13일(토), 27일(토) 오후 2사~5시

• 참여대상 : 1인 줄넘기대회(아동 및 청소년)
2인 줄넘기대회(아동, 청소년, 성인)

• 신청기간 : 10월 10일(수)까지

• 신청방법 : 전화신청 후 방문접수

■ 탁구대회

• 대회일시 : 10월 20일(토) 오후 2사~5시

• 참여대상 : 청소년(중·고등학생)

• 신청기간 : 10월 17일(수)까지

• 신청방법 : 전화신청 후 방문접수

■ 문의 : 화수청소년문화의집 ☎ 762-7942

품질우수제품전 및 아이디어창업 박람회 열립니다

인천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품질향상에 동기를 부여하고 우리시 지정 품질우수 및 유망중소기업 제품을 홍보하며 아이디어 창업문화 조성 및 창업(예정)자 홍보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인천 품질우수 제품전 및 아이디어 창업 박람회가 열립니다.

■ 행사기간 : 10월 26일(금)~10월 28일(일)

■ 행사장소 : 인천중소기업제품종합전시장(동춘역 1번 출구)

■ 주최 : 인천광역시

■ 주관 : 인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행사내용

- 품질우수 제품전시관 : 우리시 선정 품질우수상품 및 유망중소기업 제품 전시
- 신기술창업관 : 신기술 및 특허기술 보유기업 제품 전시
- 아이디어창업관 : 예비창업자 아이디어 상품 전시
- 유망소자본 창업관 : 소자본 창업 희망 대상자를 대상으로 유망 프랜차이즈 업체 설명회
- 전시장 관람객을 위한 이벤트 기획 및 진행
 - 이벤트 : 경품행사 및 특별판매전
 - 공연 : B-Boy공연, 댄서댄스 등
- ※ 전시규모는 총 105부스임

■ 참가자격

- 인천시가 선정한 우수중소기업(유망중소기업, 품질우수제품기업등)
 - 제품의 전시 및 홍보를 원하는 인천관내 중소기업
 - 인천관내 신기술 보유기업(벤처 및 이노비즈 기업)
 - CreBiz 스쿨 수료자 및 Idea/소자본 창업 희망자
 - 창업 경쟁력 및 신뢰도 있는 유망 프랜차이즈 업체
- ※ 참가업체 선정 : 지원업체가 다수일 경우 인천시 참여율이 높은 순으로 선정함

■ 참가비용 : 무료

■ 문의 :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260-0222(www.ipie.co.kr)

인천시민 재활용 한마당 열립니다

2007 인천시민 재활용 한마당 3R(Reduce, Reuse, Recycle) Festival이 열립니다.

■ 일시 : 10월 13일(토) 오후 1사~5시

■ 장소 : 인천중앙공원(인천터미널 건너편)

■ 주제 : ‘재활용만의 세상, 꿈이 아닙니다.’

■ 주최 : 인천광역시·인천의제21실천협의회

■ 참여단체 :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 등 20개 단체

■ 참여대상 : 어린이, 청소년, 환경시민단체, 기업체, 일반시민 등

■ 주요내용 : 빈 박스로 예쁜 수납장 만들기 등 참여·체험마당 부스운영

아울러 인천시민 행복한 나눔장터가 10월에도 계속됩니다.

■ 일시 : 10월 13일(토)/ 10월 20일(토)/ 10월 27일(토)

오후 1사~오후 4시

■ 장소 : 중앙공원(인천종합터미널 건너편)

■ 참여대상 : 가족, 동호회, 유치원, 초·중·고생, 일반단체 등

일 정	월별 이벤트 운영 테마	비 고
10월 13일	－ 종이 재활용 (재활용 한마당과 연계추진) 환경사랑 ! 종이사랑 !	신문지 · 종이
10월 20일	－ 재활용품을 이용한 액세서리 만들기 나만의 패션 아이템 !	액세서리
10월 27일	－ 폐식용유를 이용한 비누만들기 환경을 생각하는 착한마음 ! ※ 2007년도 나눔장터 폐장	폐식용유

■ 참가안내 및 문의

- 나눔 장터 홈페이지(www.happynaum.com)
- 한마당 :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 담당 ☎ 433-2122
- 나눔장터 : 인천YWCA 담당 ☎ 424-0524
- 인천시청 폐기물자원과 재활용팀 ☎ 440-3573

고용조사 협조 바랍니다

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올바른 노동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2007년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청년패널조사’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에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15세 이상의 인구 중 취업상태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의 조사입니다.

- 조사기간 : 9월 3일(월)~11월 16일(금)
- 조사대상 : 전국 7만 5천 표본가구 내 취업자
- 조사대행기관 및 조사원 : (주)한국리서치 전문면접원
- 조사문의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조사팀 권윤섭 ☎ 02)2629-7252

■ 청년패널조사

전국 만 15~29세 청년층 1만 명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진입과정에 대해 매년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종단적 추적 조사입니다.

- 조사기간 : 10월 1일(월)~12월 10일(월)
- 조사대상 : 만 15~29세 청년층 1만2,000명
- 조사대행기관 및 조사원 : (주)TNS코리아 전문면접원
- 조사문의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조사팀 장재호, 최형아 ☎ 02)2629-7242, 7255

■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대학졸업자의 노동시장 이행연구와 청년실업 문제해결을 위한 신뢰성 있는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매년 실시되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패널조사(Panel Survey)입니다.

- 조사기간 : 8월 27일(월)~10월 31일(수)
- 조사대행기관 및 조사원 : (주)한국리서치 전문면접원
- 조사문의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조사팀 윤정혜, 이성재 ☎ 02)2629-7243, 7251

어린이 교통안전 질서 백일장 열립니다

어린이들의 건전한 교통안전의식 고취와 준법정신을 확산시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질서백일장(글짓기)을 개최하오니 많은 참가 바랍니다.

- 일시 : 10월 20일(토) 오전 10시~12시
- 장소 :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야외공연장 (연수구 옥련동 소재)
- 대상 : 인천시내 초등학교 4, 5, 6학년
- 신청기간 : 10월 8일(월)~10월 12일(금)
- 신청방법 : 학교별 4명 이내로 소정의 양식에 의해 신청서 접수
- 주제 : 교통안전과 관련된 주제로 당일 발표



- 준비물 : 필기구(연필 및 원고지 작성에 필요한 책받침)
- 합격자 발표 : 입상자 학교로 개별 통보
- 신청서 및 안내문은 공단 홈페이지(www.rtsa.or.kr) 시·도교육장 인천지부(공지사항)참조
- 문의 : 교통안전관리공단 인천지부 교육홍보팀 ☎ 830-6162~8

공익차원의 온라인 결혼지원센터 오픈했습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최선정 이하 인구협회)는 (주) 좋은만남 선우(대표 이웅진)와 협력사업으로 온라인 결혼지원센터(www.match.kr)를 9월 1일(토)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기성취를 위한 학업 및 직장생활 등에 의한 시간적 제약으로 본의 아니게 이성과 교제가 늦어지는 만혼계층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인구협회는 결혼지원센터를 통해 이상형 이성과의 만남을 제공해 혼인율 상승 및 초혼연령을 낮추고자 합니다.

- 이용방법 : 인터넷 주소창에 ‘결혼지원’을 치거나, 홈페이지 주소 www.match.kr를 입력
- 이용절차 : 사이트 회원가입 후 회원정보입력으로 신원인증을 받은 후 매치서비스 이용
- 신원인증 서비스 : 간단한 회원가입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174항목을 적용하여 확실한 신원확인을 통한 ‘만들 수 있는 만남’을 이룰 수 있도록 도움
- 비회원 서비스 : 공익차원에서 ‘혼전 건강교실’, ‘예비 부부교실’, ‘예비 부모교실’ 등 결혼 생활과 관련된 정보 제공
- 웨딩멘토 결혼 관련 무료 상담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종류 : 쿠피팅(가상번호를 통한 문자 발송 실시간 찜 서비스), 오픈프러포즈(공개구혼PR 서비스), 컨설팅리포트(본인 신상정보입력 배우자 선택기준 확인), 셀프매치, 성격매치, 하모니매치 등
- 문의 : 인구보건복지협회 ☎ 431-4000

이혼숙려제도 토론회 열립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인천지부는 증가하고 있는 이혼율을 줄이기 위해 협의이혼 시 일정기간 숙려기간을 가지는 이혼숙려제도에 따른 이혼전 상담을 2006년 12월부터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이혼숙려제도에 따른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일시 : 10월 25일(목) 오후 6시~9시
- 장소 : 파라다이스 호텔 2층
- 주최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인천지부
- 후원 : 인천광역시
- 주제발표 : 이상권 변호사-이혼 후 발생하는 문제점과 이혼숙려제도의 필요성
- 토론 : 이희배 (인천대학교 법학과 가족법 교수), 한의열 (가정상담센터장, 이혼숙려제도 상담위원), 시관계자, 법원관계자
- 문의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인천지부 ☎ 438-1113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특강

인천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는 부모들과 고민을 함께 나누고 또 스스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전문가를 모시고, 인천관내 초중고 학부모들이 자녀에 대해 올바르게 알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부모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도록 특강을 통해 전하고자 합니다.

- 주제 : 자녀와 갈등, 행복으로 가는 길
- 일시 : 10월 18일(목) 오전 10시~12시
- 강사 : 우애령(현실치료전문가, 소설가)
- 대상 : 인천관내 초중고 학부모 및 교사 250여명
- 장소 : 인천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성신호대학원대학교 대강당)
- 참가비 : 무료(음료 제공)
- 신청기한 : 9월 27일(목)~10월 15일(월) 선착순 마감
- 신청내용 : 참가자명, 연락처 명기
- 접수 : 홈페이지(www.inyouth.or.kr) 교육신청게시판 이용 또는 ☎ 429-5562~3 전화접수(담당 : 변상조 상담원)

제6회 인천평생학습축제 열립니다

The 6th Incheon Lifelong Learning Festival

시민들에게 평생학습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와 평생학습 참여 문화를 효과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며 학습동아리 경연대회, 작품전시회 등 다양한 이벤트가 있는 인천 평생학습축제가 열립니다.

- 주제명 : ‘평생학습이 희망입니다! 여러분께 희망날개를 달아드립니다.’
- 행사기간 : 10월 26일(금)~28일(일) 3일간
 - ※ 개막식 10월 26일(금) 오후 2시, 폐막식 10월 27일(토) 오후 6시
- 장소 : 연수구청
- 참여대상 : 인천시민 누구나
- 주최 : 인천광역시 교육청·연수구
- 주관 : 연수구청·인천평생교육정보센터(북구도서관)
- 문의 : 인천북구도서관 ☎ 519-9021

사업 고민 짝~악 펴드립니다

〈굿모닝인천〉은 매달 9만부씩 발행되어 인천시내의 공공기관과 각 가정에 배포되는 인천 최대의 인쇄매체입니다.

〈굿모닝인천〉의 유료광고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도와 드리겠습니다.

■ 광고료(1개월·컬러기준)

표4 (맨 뒤 겹표지)	표2 (앞표지 뒷장)	표3 (표4 앞면)
256만2천원	166만5천원	128만1천원

※광고 게재 등 문의사항은 공보관실 〈굿모닝인천〉편집팀 (☎ 440-207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월 축제 행사 일정

● 제6회 인천·중국의 날 문화축제

	10월 12일(금)	10월 13일(토)	10월 14일(일)
12:00~13:00	이벤트 한마당 (중국만두 먹기, 자장면 빨리먹기)		
13:00~14:00	제3회 국제사자춤대회 개막식(시범공연)	국제사자춤대회 예선 중국예술단 초청공연	국제사자춤대회 예선 중국예술단 초청공연
14:00~16:00	중국예술단 초청공연 (북사자춤, 용춤, 위해시 기예, 소림무술공연)		
17:00~17:30	거리퍼레이드	공연준비	거리퍼레이드
17:00~17:30	공연준비		국제사자춤 시상식
17:30~18:00	식전공연		국제사자춤 대회 우승팀 앵콜 공연
18:00~18:30	축제 개막식		공연준비
18:00~21:00	경축공연 (SBS FM 공개방송)	연계행사 한·중 청소년국제가요제 ※ 별도계획 수립추진	연계행사 한·중 청소년국제가요제 ※ 별도계획 수립추진
21:00~21:20	경축 불꽃축제	경축 불꽃축제	
상 설	· 체험행사 : 중국 요리체험(천진요리), 중국 전통공예체험, 중국 전통의상 체험, 중국 전통차체험, 인천 전통공예체험 등 · 연계행사 : 천진시 감지천진 문화공연, 천진시 감지천진 사진전, 사랑의 자장면 나눔의 행사, 수타시범 등 · 전시행사 : 천진시 홍보관, 인천시 홍보관, 2009 인천세계도시엑스포, 2014 인천아시안게임 인천개회 홍보관, 청도우수작가 초대전, 중국전통 물산전 등		

● 2007 인천하늘축제

일	시간	행사명	행사개요	장소
10월 12일 (금)	17:30~18:30	리셉션	초청대상자 및 공향관계자 환대	인근호텔
	16:00~18:30	스카이 프렌드십 파티 (Sky Friendship Party)	공향상주가족들이 참여하는 이벤트	이마트 분수광장
	16:00~18:00	지역주민 한마당	영종·용유 주민등 인근주민들과의 이벤트	잔디광장
	19:00~21:30	TV 공개방송	최정상급 인기가수 축하공연(KM TV)	잔디광장
10월 13일 (토)	10:30~17:00	Sky 어린이 사생대회	유치원 및 초등학교 대상 사생대회	잔디광장
	14:00~18:00	Sky 아름다운 가게	기증품 불우이웃 전달	메인대 주변
	14:00~17:40	스카이 무빙 스테이지 (Sky Moving Stage)	공중곡예 위주 서커스	메인무대
	15:30~16:30	지역특성화 학교 참여행사	지역 참가학교 공연	메인무대
	17:50~18:30	스카이 패션쇼 (Sky Fashion Show)	인천공항 상주기관, 협력기관, 항공사 승무원복 패션쇼	메인무대
	18:40~20:10	스카이 시네마 (Sky Cinema)	가족단위 영화상영	메인무대
10월 14일 (일)	14:40~15:10	그린 에어포트(Green Airport) 경진대회 시상식	공항에서 수거된 재활용 캔을 소재로 환경작품 경진대회	메인무대
	15:10~17:10	스카이 콘테스트 (Sky Contest)	공항 및 상주기업 직원과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콘테스트 개최	메인무대
	14:00~17:50	스카이 무빙 스테이지 (Sky Moving Stage)	공중곡예 위주 서커스	메인무대
	10:00~18:00	스카이 시네마 (Sky Cinema)	가족단위 영화상영	공항공사 대강당

스테미너의 왕
대하



대하에는 우리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대하에 함유된 콜레스테롤은 소, 돼지에 있는 콜레스테롤과는 성분이 다르다. 또한 타우린이 많아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 벽에 달라붙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많이 먹을수록 우리 몸에 아주 좋다. 대하는 신장에 좋은 식품이며 온몸의 혈액 순환을 도와 기력을 높여주고 양기를 돋구어주는 보양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대하의 껍질은 당분과 단백질의 결합으로 이루어졌으며 가열하면 적흑색이던 것이 고운 적색으로 변한다. 이 때 소화효소인 많은 양의 프로테아제가 생성되어 소화제 역할을 하므로 많이 먹어도 탈이 나지 않는다.

한방에서 대하는 남성의 양기를 북돋워주고 스테미너의 원천인 신장을 강하게 하는 강장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중국의 『본초강목』에는 '혼자 여행할 때는 대하를 먹지 말라'는 대목이 나온다. 그리고 '미혼 남성은 대하를 먹지 말라'는 말도 있다.

우리 인천에서는 강화도와 영흥도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으며 이 지역을 여행하다보면 대하를 소금구이로 판매하는 집들이 많다. 🐙

자료제공 · 시 수산과 | 사진 ·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붉은 나문재, 고향을 부르다



박영동 作 · Oil on Canvas · 53.0cm×45.5cm · 2006

자연을 묘사할 때 리얼리즘보다는 명료하게 구별되는 나만의 개성을 기반으로 작품에 임한다. 즉 구도보다는 구성을 중요시하고, 화면 구성체 전반에 움직이는 화면에 이야기 거리를 삽입하여 감상자로 하여금 즐거움을 주는데 더욱 치중하고 있다. 풍경화는 한국적 정취가 담긴 농촌의 산하가 주류를 이루고 높은 산과 흐르는 강, 나무들이 나열된 제각기 다른 이야기들을 말해 주고 있으며 작품마다 검정 선으로 형태의 윤곽을 둘러 물체와 물체를 구별해주는 근엄한 표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색은 열정적인 색을 주로 좋아한다. 어린시절 고향의 가을바다에 가면 붉은 나문재를 볼 수 있었다. 얼마나 아름답고 환상적이었는지. 지금은 폐허가 된 소래 근교에 가면 10년전 만해도 갯벌 위에 붉은 나문재가 펼쳐진 풍경을 볼 수 있었다. 그때 그 인상을 자주 화폭에 담아보곤 한다.